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경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크리스 쿡시 작품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의 그로테스크 표현 연구

2014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예술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 전공  
이 현 진

크리스 쿡시 작품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의 그로테스크 표현 연구

김 경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예술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 전공  
이 현 진

# 인 준 서

이현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4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 논문개요

현대에서의 그로테스크적인 표현은 예술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오늘 날에는 하나의 새로운 예술양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작가들은 작품의 충격적인 요소를 통해 관객들에게 사회 비판적인 시각과 인간의 내면, 부조리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메시지를 전달한다. 현대에서의 그로테스크는 신체 또는 물체의 왜곡과 과장을 통하여 공상적인 세계를 표현함으로써 현실을 강조하며, 공상적인 영역과 함께 현실의 문제와도 당면되는 확장개념으로 정신분석학적 범주까지 포함되어 설명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시미술을 대표하는 초현실주의 작가 크리스 쿡시(Kris Kuksi)의 작품에서 나타난 그로테스크 특성을 살펴보고 그로테스크의 현대적 정의를 시도한 필립 톰슨(Philip Thomson)의 이론에 따라 작품을 분류 후 아트메이크업 작품제작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작품제작을 하는데 있어 디자인 프로세스의 체계적인 접근 방법 및 디자인 능력을 향상시키며, 새로운 아트메이크업 디자인 발상 및 전개 등 창의적이며 다양한 디자인 개발에 도움을 주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방법은 선행연구와 관련서적을 토대로 그로테스크와 아트메이크업의 개념과 특성을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크리스 쿡시의 작품을 필립 톰슨이 정의한 그로테스크의 특성에 맞게 작품을 분류하였으며, 크리스 쿡시의 작품 중 8가지 작품을 선정하여 그로테스크 특징을 아트메이크업을 통해 작품을 제작하였다.

본 작품은 크리스 쿡시의 작품을 그로테스크의 네 가지 특성(부조화성, 왜곡과 과장, 웃음과 공포, 비정상성)으로 분류 후 아트메이크업 작품으로 제작하였다. 모든 작품 제작에서는 Computer Graphic을 이용한 디지털 페인팅 기법과 페인팅 기법을 활용하였다.

작품 I의 ‘Loss of Identity’는 그로테스크 특성 중 ‘부조화성’에 해당되는 작품으로 자아를 상실한 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II의 ‘Kentauros’는 그로테스크 특성 중 ‘부조화성’에 해당되는 작품으로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반인반마(半人半馬)의 괴물 켄타우로스를 형상화하여 표현하였다.

작품 III의 ‘Reveal Inner Side’는 그로테스크 특성 중 ‘왜곡과 과장’에 해당되는 작품으로 아름다운 겉모습을 표현함과 동시에 인간 내면의 추악한 모습을 작품으로 나타내어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을 표현하였다.

작품 IV의 ‘악마의 웃음’은 그로테스크 특성 중 ‘웃음과 공포’에 해당되는 작품으로 돈을 삶의 가장 큰 가치로 여겨 모든 것을 돈과 연관시켜 생각하고, 돈이 목적이 되며 돈을 신격화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배금주의 시대의 모습을 풍자하였다.

작품 V의 ‘인형의 꿈’은 그로테스크 특성 중 ‘웃음과 공포’에 해당되는 작품으로 무대 위의 꼭두각시 인형을 작품으로 나타내어 본인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타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풍자하였다.

작품 VI의 ‘Puzzle’은 그로테스크 특성 중 ‘비정상성’에 해당되는 작품으로 퍼즐 조각을 하나의 얼굴로 연결하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펼쳐질 삶을 표현하였다.

작품 VII의 ‘Poker Face’는 그로테스크 특성 중 ‘비정상성’에 해당되는 작품으로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상대방을 대하는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을 표현하였다.

작품 VIII의 ‘Cogwheel’은 ‘비정상성’에 해당되는 작품으로 매일 반복되는 현대인들의 일상을 삶을 톱니바퀴에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작품제작에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하여 작품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로테스크의 특성을 메이크업과 연결시켜 표현, 완성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3
1. 그로테스크	3
1) 그로테스크 개념	3
2) 그로테스크의 미술사적 변천	5
2. 그로테스크 특성	16
1) 필립툼슨의 그로테스크	16
2) 미하일 바흐친의 그로테스크	20
3) 메리 루소의 언캐니 그로테스크	21
3. 크리스 쿡시 작품분석	24
1) 크리스 쿡시 생애	24
2) 크리스 쿡시 작품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25
4. 아트메이크업의 이론적 고찰	33
1) 아트메이크업의 정의	33
2) 아트메이크업의 유형	34
3) 아트메이크업의 기법	39
III. 작품	44
1. 제작의도	44
2. 작품제작	46

1) 작품 1	46
2) 작품 2	50
3) 작품 3	54
4) 작품 4	58
5) 작품 5	62
6) 작품 6	66
7) 작품 7	70
8) 작품 8	74

IV. 결 론	78
---------	----

참고문헌

ABSTRACT

## 표 목 차

<표 1> 그로테스크 특성에 따른 크리스 쿡시 작품 분류.....	32
<표 2> 그로테스크 특성을 응용한 작품 디자인 계획.....	45
<표 3> 작품Ⅰ 디자인 이미지.....	47
<표 4> 작품Ⅱ 디자인 이미지.....	51
<표 5> 작품Ⅲ 디자인 이미지.....	55
<표 6> 작품Ⅳ 디자인 이미지.....	59
<표 7> 작품Ⅴ 디자인 이미지.....	63
<표 8> 작품Ⅵ 디자인 이미지.....	67
<표 9> 작품Ⅶ 디자인 이미지.....	71
<표 10> 작품Ⅷ 디자인 이미지.....	75

## 그림 목 차

<그림 1> Gargoyle.....	12
<그림 2> Tympanum, 「The Last Judgement」 .....	12
<그림 3> Tympanum, 「Christ in Glory」 .....	12
<그림 4> Hieronymus Bosch, 「Garden of Earthly Delights」 .....	12
<그림 5> Hieronymus Bosch, 「Last Judgement」 .....	13
<그림 6> Pieter Bruegel, 「The Triumph of Death」 .....	13
<그림 7> El Greco, 「The Death of Count Orgaz」 .....	13
<그림 8> Francisco José de Goya y Lucientes 「The Sleep of Reason Produces Monsters」 .....	13
<그림 9> John Henry Fuseli, 「The Nightmare」 .....	14
<그림 10> Wiliam Blake, 「The Great Red Dregon and The Woman Clothed with Sun」 .....	14
<그림 11> Gustav Klimt, 「The Kiss」 .....	14
<그림 12> Edvard Munch, 「The Scream」 .....	14
<그림 13> Salvador Dalí, 「Premonition of Civil War」 .....	15
<그림 14> René Magritte, 「Le modèle rouge」 .....	15
<그림 15> Kris Kuksi, 「A rather Noble Cock」 .....	29
<그림 16> Kris Kuksi, 「Churchtank Type8」 .....	29
<그림 17> Kris Kuksi, 「Anatomic Fabrica」 .....	29
<그림 18> Kris Kuksi, 「Immaculate Conception」 .....	29
<그림 19> Kris Kuksi, 「Song for Irina」 .....	30
<그림 20> Kris Kuksi, 「The Throne of Lucifer」 .....	30
<그림 21> Kris Kuksi, 「Orangutan the Messenger」 .....	30
<그림 22> Kris Kuksi, 「Portrait of an ethereal woman」 .....	30

<그림 23> Kris Kuksi, 「Delphyne」	31
<그림 24> Kris Kuksi, 「Adagio」	31
<그림 25> 캠페인 이미지	38
<그림 26> 로고 페이스페인팅 이미지	38
<그림 27> 판타지 메이크업 이미지	38
<그림 28> 바디페인팅 이미지	38
<그림 29> 페인팅 기법을 활용한 이미지	43
<그림 30> 오브제 기법을 활용한 이미지	43
<그림 31> 스텐실 기법을 활용한 이미지	43
<그림 32> 에어브러쉬 기법 활용한 이미지	43
<그림 33> 작품 I - 메이크업	48
<그림 34> 작품 I	49
<그림 35> 작품 II - 메이크업	52
<그림 36> 작품 II	53
<그림 37> 작품 III - 메이크업	56
<그림 38> 작품 III	57
<그림 39> 작품 IV - 메이크업	60
<그림 40> 작품 IV	61
<그림 41> 작품 V - 메이크업	64
<그림 42> 작품 V	65
<그림 43> 작품 VI - 메이크업	68
<그림 44> 작품 VI	69
<그림 45> 작품 VII - 메이크업	72
<그림 46> 작품 VII	73
<그림 47> 작품 VIII - 메이크업	76
<그림 48> 작품 VIII	77

## I. 서론

현대의 미술작품은 더 이상 이상적인 질서나 숭고함 같은 원작자의 메타담론을 담아낸 유일한 창조물이 아니라 시장에서 유통되면서 서로를 창조하는 이미지 정보<sup>1)</sup>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매체의 등장으로, 예술의 표현형식은 과거에 비해 그 정도가 가히 혁명적이라 할 정도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sup>2)</sup> 실험정신에 입각한 다양한 시도로 전통적인 장르가 혼합되거나 붕괴되는 현상 자체가 현대예술의 개념이 되고 있다.<sup>3)</sup>

이렇듯 현대 미술은 감성과 정서의 표현들이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관계맺음으로 부각되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 감성영역 중 터부시되거나 평가절하 되는 현상이 그로테스크이다.<sup>4)</sup>

그로테스크는 현대미술에서 기존의 미의 범주와 구분되는 추(醜)의 개념이 미적 범주에 속하게끔 하는데, 추한 존재와 사물들이 존재하지만 예술은 그것을 아름답게 표현할 힘을 가지고 있다.<sup>5)</sup>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시미술을 대표하는 초현실주의 작가 크리스 쿡시(Kris Kuksi)의 작품에서 나타난 그로테스크 특성을 살펴보고 그로테스크의 현대적 정의를 시도한 필립 톰슨(Philip Thomson)의 이론에 따라 작품을 분류 후 이를 바탕으로 아트 메이크업 작품으로 제작하고자 한다.

아트메이크업은 예술성을 추구하는 메이크업으로 표현상의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는 실험적인 조형예술의 한 장르<sup>6)</sup>로, 본 연구의 작품을 제작함에 있어 아

1) 윤난지 (2000), 「현대미술의 풍경」, 서울: 예경, p. 6.

2) 윤민희 (2008), 「새로운 조형예술의 이해」, 서울: 예경, p. 35.

3) 최미라 (2004),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추이미지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

4) 조영아 (2013), 「현대미술에서 그로테스크 표현연구 도그마티즘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

5) 움베르토 에코 저/ 이현경 역 (2006), 「미의 역사」, 과주: 열린책들, p. 133.

6) 이화순 외 (2003), 「The Art of Makeup」, 서울: 형설출판사, p.8.

트 메이크업의 다양한 표현기법을 기반으로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여 실험적이고 창조적인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로테스크 개념을 바탕으로 이론적 고찰 및 작품 분석을 통하여 창의적인 아트 메이크업 작품을 제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아트 메이크업에 컴퓨터 그래픽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다양성 있는 아트 메이크업을 표현하여 창의적인 아트메이크업 디자인 개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그로테스크와 아트메이크업에 대하여 살펴보고 필립 톰슨의 이론에 따라 작품의 유형을 분류하고 크리스 쿡시의 작품의 특징을 정리하여 총 8점의 아트 메이크업 작품으로 제작한다.

본 연구의 작품제작을 위하여 여성의 얼굴 및 상반신에 아트 메이크업의 페인팅 기법을 적용하고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한 디지털 페인팅 기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 Ⅱ. 이론적 배경

### 1. 그로테스크

#### 1) 그로테스크 개념

그로테스크(Grotesque)의 사전에서의 명사적 의미는 괴상함, 또는 흉측하거나 우스꽝스러움을 뜻하며 예술적 의미에서는 인간이나 사물 따위를 괴기스럽게 묘사한 예술미로 정의되어 있다.<sup>7)</sup> 현대에서의 그로테스크라는 뜻은 보통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기이한 것, 또는 극도로 부자연한 것, 흉측하고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예술이나 창작에서, 인간이나 사물을 괴기하고 황당무계하게 묘사하는 괴기함을 일컫는다.<sup>8)</sup>

15세기 말 그로테스크는 장식술(Ornamentik)에 대한 개념으로 고대 로마의 폐허가 발굴되었을 때, 지하에 파묻혔던 건축물에서 나온 벽모양이 덩굴식물인 아라베스크에 공상의 생물, 괴상한 인간의 상, 꽃과 과일 등을 복잡하게 결합시킨 것으로 괴이한 무늬를 일컫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sup>9)</sup>

사람들은 이러한 균형이나 비율 등의 법칙이 유효하지 않는 이질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 스타일을 라 그로테스카(la grottesca)라고 불렀으며, 이후 그로테스크는 회화나 건축에서 인간, 동물, 식물 형태간의 무질서한 혼합과 기괴한 이미지들로 지칭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어 사용되었다.<sup>10)</sup>

16세기 경 그로테스크라는 용어는 미술과 문학, 건축과 조형 등 비 미술 분야에 걸쳐져 전체적으로 확대되었고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로테스크

7) 다음 한국어 사전. <http://dic.daum.net/> (2014년 3월 5일)

8) 볼프강 카이저 저/ 이지혜 역 (2011), 「미술과 문학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서울: 아모르문디, p.43.

9) 두산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 (2014년 3월 5일)

10) 이정인 (2007), 「현대무용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적 성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

란<sup>11)</sup> 인간적인 것에 부여된 규칙이 파괴되기를 바라는 소망이나 혹은 현실과 진실에 대한 사고가 결코 고요 속에 위치하지 않고 꿈과 같은 특성을 갖게 되기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sup>12)</sup>

이전까지 장식술에만 제한되었던 그로테스크 개념은 18세기에 들어서며 그로테스크의 개념을 미학적 범주로 확립시키려는 시도가 행해지며 1775년 뷔란트(Wieland)에 의해 그로테스크의 개념이 예술개념으로 발전하였다.<sup>13)</sup>

뷔란트는 자연과의 유사성이라는 맥락에서의 모든 사실성이 차단된 것이야말로 참된 그로테스크라고 말했으나, 관찰자가 느끼는 충격을 현실세계의 파괴와 당면해 느끼는 당혹감으로 해석할 때 그로테스크는 인간세계와 은밀한 관계를 맺는 동시에 일정한 ‘사실성’을 부여받기도 한다.<sup>14)</sup>

20세기에 이르러 그로테스크는 독일의 비평가 볼프강 카이저(Wolfgang Kayser)에 의해 그로테스크가 집대성, 비평적 언어로 확립되었다.<sup>15)</sup>

그 이후 그로테스크에 대한 개념은 러시아의 철학자 미하일 바흐친(Mikhail M. Bakhtin)과 필립 톰슨(Philip Thomson)에 의해 재정립 되었다.

볼프강 카이저는 예술가의 꿈과 환상을 그로테스크의 주요 원천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보는 사람에게서 이끌어내는 정서적 반응을 중요한 면모로 다루었다. 저서 ‘예술과 문학에서의 그로테스크’(The Grotesque in Art and Literature)에서 그로테스크를 “세계를 상상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 상상대로 세계를 재구성할 때에는 단순한 기괴함과 섬뜩함, 무질서가 아닌 무질서 안에서의 질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기괴함을 표현하는 것이 그로테스크 예술의 지향점이라 하였다.<sup>16)</sup> 또한 그로테스크의 본질을 친숙한 세계가 갑자기 ‘낯설어진 것’, ‘소외된 세계의 표현’이라는 견해와 함께 그로테스크

---

11) 볼프강 카이저 저/ 이지혜 역 (2011), 전게서, p.45.

12) 강연경 (1999), 「보나벤투라의 야경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

13) 김승현 (2005), 「그로테스크 특성이 반영된 예술 분장의 연구」, 중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14) 볼프강 카이저 저/ 이지혜 역 (2011), 전게서, p.61.

15) 이선화 (2011), 「메이크업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의 조형성」, 복식 61(5), p.36.

16) 김한나 (2012), 전게서, p.4.

를 죽음 뿐 아니라 인간의 실존적 공포에 관계시키며 죽음, 공포 등의 부조리한 것을 통해 그로테스크의 섬뜩함을 나타내고 있다.<sup>17)</sup>

## 2) 그로테스크의 미술사적 변천

본 연구에서는 그로테스크의 시대적 변천을 미술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중세(4세기부터 14세기), 근세(15세기부터 18세기), 근대(19세기), 현대(20세기)로 분류하고자 한다.<sup>18)</sup>

### (1) 중세

중세 초기 예술에 표현된 그로테스크 양식은 게르만족 및 켈트족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 여러 세공품이나 성당 내부의 부조에서 다양한 동물들의 신체 부위들이 형태가 왜곡된 채 복잡하게 얽힌 무늬로 발견된다.<sup>19)</sup> 중세 시대의 그로테스크는 인간보다는 신 중심이었던 시대에 걸맞게 종교에 관련한 특징이 보인다는 것과 객관적인 사실묘사를 무시하고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힘을 높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sup>20)</sup> <그림 1>은 중세시대 건축물의 조각상으로 공상동물, 괴물들이 뒤섞여 혼잡을 이룬 괴수의 형상으로, 이 형상에서 그로테스크 초기 양식을 짐작할 수 있다.<sup>21)</sup> <그림 2>는 요한계시록의 한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오뎅 대성당의 팀파눔 지슬베르의 「최후의 심판」이다. 이는 지옥에 대한 중세의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다.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두려움과 온 몸에 털이 난 사탄과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은 지옥을 괴물로 채워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낸다.<sup>22)</sup> <그림 3>은 생 피에르 교회의 팀파눔인 「지배자

17) 이선화 (2011), 전계서, p.36.

18)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5298&cid=1389&categoryId=1389/>  
(2014년 4월 3일)

19) 박은경 (2003), 「패션에 표현된 그로테스크 이미지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1(10), p.90.

20) 이은기, 김미정 (2012), 「서양미술사」, 미진사, pp.98-99.

21) 신용준 (2008), 「그로테스크 아트퍼니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22) 이은기, 김미정 (2012), 전계서, p.134.

예수」이다. 지배자 예수 역시 요한 계시록의 한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팀파눔에서 예언자들의 몸은 길게 늘어져서 자세가 비틀어져 있으며, 장로들의 팔과 다리는 모두 달라 꿈틀거리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또한 팀파눔안의 동물들은 날개를 6개씩 가지거나 눈이 가득하게 박힌 등 비정상적인 형태를 띄고 있다.<sup>23)</sup> 이처럼 중세시대에 그로테스크는 고대 초기의 기하학적 양식으로부터 이며 공상동물, 짐승과 인간의 신체가 뒤얽혀 혼잡을 이룬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sup>24)</sup>

## (2) 근세

16세기 르네상스 민중들에게는 봉건적 중세와 교회의 공식적이고 엄숙한 문화에 대립되는 웃음의 문화가 활성화 되었다.<sup>25)</sup>

북유럽 르네상스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슈(Hieronymous Bosch)는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종교화가로 보슈의 작품은 악에 대한 철학적인 예리한 성찰과 도학자적인 기발한 풍자를 가해 가치가 뒤바뀐 역우주, 신의 섭리에 반한 종말론적 세계상을 그려냈다.<sup>26)</sup> 보슈의 작품은 기묘하면서도 불합리한 이미지로 가득 차 있으며 고대 장식물의 그로테스크한 형상뿐만 아니라 중세와 르네상스 카니발 그로테스크의 육체에 대한 관념을 잘 대변한다.<sup>27)</sup>

보슈의 「세속적 쾌락의 동산」(그림 4)에서는 낙원과 지상의 쾌락, 지옥의 모습이 한꺼번에 담겨 있다. 세속 제단화 형식의 이 작품에는 모습이 변형된 파충류나 거대하게 그려진 식물들, 올빼미의 머리를 하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sup>28)</sup> 여러 사물들을 섞은 괴이한 형상들은 기괴함과 잔혹성이 표현되고 있는 동시에 사물의 왜곡적인 표현에 따른 그로테스크의 희비극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sup>29)</sup> 보슈의 「최후의 심판」(그림 5)를 보면 부활한 자들이

23) 이은기, 김미정 (2012), 상계서, pp.130-131.

24) 김승현 (2005), 「그로테스크 특성이 반영된 예술 분장의 연구」, 한국패션뷰티학회지 3(2), p.40.

25) 박은경 (2003), 전계서, p.87.

26) 최정화, 유영선 (1998), 「현대 패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복식 40, p.154.

27) 박은경 (2003), 전계서, p.90.

28) 이은기, 김미정 (2012), 전계서, p.222.

무덤에서 나오는 모습과 비정상적 모습을 하고 있는 괴물들을 볼 수 있다. 보슈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괴물들은 괴기스럽게 웃고 있는 머리에서 다리가 빠져 나오고, 방광 같은 외설적인 형체에 주둥이가 머리가 달려있는 등 비자연적이고 괴기스러운 형체로 나타난다.<sup>30)</sup> 보슈는 상상속의 기괴한 풍경을 담은 작품으로, 작품 속 상상력은 20세기 초현실주의 운동에 영향을 끼쳤다<sup>31)</sup>고 평가되어 진다.

16세기 그로테스크 역사를 대변하는 네덜란드 출신의 대 피터 브뤼헬(Pieter Bruegel)의 작품 「죽음의 승리」(그림 6)에서는 종말론에 근거한 인간세계의 파멸을 그려내고 있다. 작가는 관람자로 하여금 이 악마들이, 공포스러운 형상이 우글거리는 형이상학적인 영역이 아니라 이 화가가 그린 네덜란드의 마을과 사람과 풍경이 있는 자연세계에 존재한다는 인상을 준다.<sup>32)</sup> 브뤼헬은 종교적인 주제와 도덕적인 이야기를 어둠의 세계와 지옥의 심연을 통해 표현하며, 경이로움과 공포, 두 모순된 감정을 관객이 작품으로 느끼게 한다. 그림에서는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신비한 세계가 현재에 들어와 있는 표현 방법으로 심연을 마주할 때의 공포감을 준다.<sup>33)</sup>

1520년경부터 17세기 초에 걸쳐 회화를 중심으로 나타난 매너리즘(Mannerism)은 과장과 기교, 비뚤어진 원근법, 현실과 동떨어진 색채를 보임으로써 그로테스크의 개념과 유사한 외형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sup>34)</sup> 이 시기 작가들은 이성과 현실대신 부조화와 상상력을 발휘하고자 하였으며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기 위해 몸 전체가 비틀리고 왜곡되어 늘어진 사실주의를 버리고 불안정함을 추구하였다.<sup>35)</sup> 엘 그레코(El Greco)의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 <그림 7>에서는 인물묘사에서 나타나는 과장된 특성을 보여준다. 비례에 왜곡이

---

29) 신용준 (2008), 전게서, p.7.

30) 월터 보싱 저/ 김병화 역 (2007), 「히에로니무스 보스」, 서울: 마로니에북스, pp.41-42.

31) 두산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 (2014년 4월 5일)

32) 로제 마리 하겐, 라이너 하겐 저/ 김영선 역 (2007), 「피테르 브뤼헬」, 서울: 마로니에북스, p.45.

33) 김한나 (2012), 전게서, p.8.

34) 신용준 (2008), 전게서, p.8.

35) 박은경 (2003), 전게서, p.90.

있는 천상은 색채가 신비스럽다. 이는 그로테스크 개념을 르네상스식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36)</sup> 이처럼 근세시대 그로테스크의 주도적인 특성은 격하시키는 것으로 고상하고 이상적이며 추상적인 모든 것을 웃음을 통한 심오한 긍정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전 민중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보편적인 것이다.<sup>37)</sup> 이들의 그로테스크 세계가 힘을 갖는 이유는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며, 고정된 질서를 따라 움직이던 세계가 특별한 힘에 의해 변해가는 것은 그로테스크의 세계를 구축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sup>38)</sup>

### (3) 근대

19세기 낭만주의 사조는 이성에 억눌린 감성을 부활시켰으며 미술가들은 집단의 윤리적 명분보다 개별적 인간의 내면의 상상력에 주목하였다.<sup>39)</sup>

슐레겔(F.Schlegel)은 “낭만이란 감상적 소재를 환상적인 형식으로 서술하는 것”이라고도 정의하고 있다. “감상적 소재”란 정신적인 추구를 뜻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환상적 형식”이란 아라베스크, 알레고리, 그로테스크 같은 새로운 예술형식을 뜻하고 있다.<sup>40)</sup>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스페인의 화가 프란치스코 고야(Francisco José de Goya y Lucientes)는 혁명의 암울한 전조와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한 인간성 파괴를 특유의 어두운 유머로 그려내었으며 전쟁의 고통과 공포, 인간성 파괴의 숭고미를 통해 그로테스크를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고야의 작품에서는 이성이 아닌 광기와 합쳐진 상상력으로 수많은 죽음과 괴기한 그로테스크 모습들이 나타났다.<sup>41)</sup> 고야의 「잠자는 이성은 괴물을 깨운다」(그림 8)에서는 고야의 이성에 대한 믿음과 중세적 주술이 공존해있던 계몽시대의 양면성을 잘 보여주고

36) 김승현 (2005), 전계서, p.9.

37) 박은경 (2003), 전계서, p.87.

38) 김한나 (2012), 전계서, p.8.

39) 이은기, 김미정 (2012), 전계서, p.354.

40)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9727&cid=272&categoryId=272/>  
(2014년 4월 5일)

41) 함순용 (2009), 「고야 판화연작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미학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1.

있다.<sup>42)</sup>

영국의 존 헨리 퓨슬리(John Henri Fuseli)는 낭만주의 사조는 이성에 억눌린 감성을 부활시켰으며 상상력을 중요시 하였는데, 퓨슬리의 「악몽」 (그림 9)에서는 낭만주의 사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의 몽마는 낭만주의에서 인간 내면의 어두운 광기와 상상력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sup>43)</sup> 퓨슬리와 더불어 영국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는 북유럽의 신화와 그리스의 문학 등을 차용하여 환상적인 세계를 자신의 그림에 그렸다. 윌리엄 블레이크의 작품(그림 10)에서는 환상적인 느낌이 드는 색감과 비례가 맞지 않는 왜곡된 인체를 통해 그로테스크함을 표현하고 있다.<sup>44)</sup>

이처럼 근대 낭만주의에서의 그로테스크 특징은 합리주의에 반대하여 걱정적으로 자유를 구하여 상상하는 대로 무한한 것에 동경한다는 것과 있는 그대로의 생생한 것으로서 오로지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추한 것까지도 그려내는 것을 들 수 있다.<sup>45)</sup>

#### (4) 현대

19세기 말 시작된 그로테스크는 성(性)에 대하여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다루었던 상징주의 미술가들에 의해 잘 나타난다.<sup>46)</sup> 상징주의는 환상 속에서 내면의 세계에 귀를 기울임으로서 진실을 통찰하고자 하였으며, 미의 이상화를 회피하고 형태를 왜곡시켜 그로테스크의 형태를 재현하였다.<sup>47)</sup>

상징주의 대표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는 신화적인 환상으로 가득찬 귀족적 장식성과 성애에 대한 현대인들의 집착을 매혹적으로 결합하였다. 클림트의 「키스」 (그림 11)는 이제까지 미술사에 등장한 어떤 성애적인 표현보

---

42) 이은기, 김미정 (2012), 전계서, p.354.

43) 상계서.

44) 상계서.

45) 두산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75507&cid=40942&categoryId=33048> (2014년 4월 5일)

46) 신용준 (2008), 전계서, p.8.

47) 이영희 (2010), 「그로테스크적으로 표현된 바디페인팅에 관한 연구」, 코리아뷰티디자인학회지 6(3), p.351.

다 뇌쇄적이고 자극적이며 신화와 현대가 만나 기묘한 느낌을 주었다.<sup>48)</sup> 상징주의 미술양식 가운데 아르누보(Art Nouveau)는 그로테스크의 초기 양식에서 보이는 독특한 선의 움직임과 유사하며, 상징주의는 표현주의로 나타나는데 조형적 특성은 변형(deformation)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변형은 과격한 선을 통해 폭력적인 성(性)이나 이성관계의 심리, 죽음 등 충격적인 효과를 이용하여 시각적 긴장감을 유발하였다.<sup>49)</sup>

표현주의의 대표적인 화가 몽크의 「절규」(그림 12)는 현대사회의 불안을 나타내는 하나의 아이콘으로 성과 연령을 알 수 없는 전경의 인물로 현대화된 환경에서 내면의 공포와 소외 등의 외상을 짊어진 일반화된 현대인들의 모습으로 보여진다.<sup>50)</sup> 이처럼 표현주의가 묘사하고 있는 대상의 비정상성은 감상자로 하여금 심리적 모욕감과 충격을 주어 새로움에 개방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20~1930년 유럽에서는 세기말에 대한 공포와 두 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으로 문학과 예술에서의 그로테스크는 다양해졌다.<sup>51)</sup>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한 초현실주의는 논리가 미치지 못하는 무의식 영역의 숨겨진 진실을 표현함으로써 인간 의식의 혁명과 억압,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으로부터의 해방감과 자유를 추구하고자 고의적으로 비이성적이며 이상한 것들을 다루었다.<sup>52)</sup> 초현실주의자들은 잔혹하거나 섬뜩한 주제 보다 상상 속에서 나올 법한 환상적으로 느껴지는 새로운 세계를 탐구하였으며 사실주의적 기법으로 상식을 벗어난 환시적 장면들을 표현하였다.<sup>53)</sup>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화가로는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omingo Felipe)와 르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를 들 수 있다. 수많은 강박관념과 가상적 공포에 시달린 달리의 그림에서는 주로 사물과 그림이 왜곡되어 있으며, 혐오스러운 형상이 의도적으로 사진처럼 사실적으로 묘사된 광경을 볼 수 있다. 달리의

48) 이은기, 김미정 (2012), 전계서, pp.433-434.

49) 최정화, 유영선 (1998), 전계서, p.155.

50) 이은기, 김미정 (2012), 전계서, pp.437.

51) 볼프강 카이저 저/ 이지혜 역 (2011), 전계서, p.278.

52) 박은경 (2003), 전계서, p.91.

53) 볼프강 카이저 저/ 이지혜 역 (2011), 전계서, p.279.

작품 「내란의 예감」 (그림 13)에서는 삶은 콩으로 장식한 그림으로 신체를 왜곡하여 거대한 인체가 갑자기 팔과 다리의 기괴한 생성물로 변해 정신착란으로 서로 괴롭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sup>54)</sup> 하나의 조각상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변형된 신체 다리에는 발 대신 손이 붙어 있으며, 손이 있어야 할 곳에는 발이 붙어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변형된 신체는 보는 이로 하여금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에서는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사물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공간에 두거나 크기를 변형시키고 왜곡시켜 그리는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마그리트의 ‘붉은 모델’ (그림 14)에서는 잘려있는 발이면서 동시에 신발이기도 한, 발과 신발이 결합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무생물이 생물이 되고 생물이 무생물이 되며, 익숙한 것이 낯설어지는 공포를 표현하고 있다.<sup>55)</sup> 이처럼 현대 미술에서 나타나는 그로테스크 특성으로 환상 속에서 내면의 세계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미의 이상화를 회피하고 형태를 왜곡시켜 그로테스크의 형태를 재현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sup>56)</sup>

---

54) 질 네레 저/ 정진아 역 (2005), 「살바도르달리」, 서울: 마로니에북스, p.45.

55) 박은경 (2003), 전게서, p.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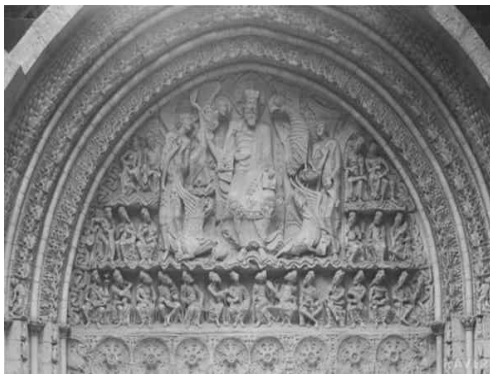
56) 이영희 (2010), 전게서, p.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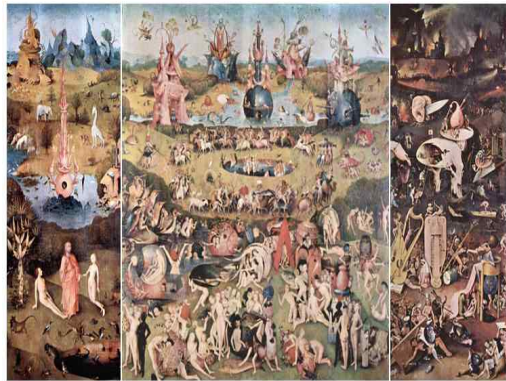
<그림 1>가고일 이미지  
 (출처-<http://ambrosa.egloos.com/viewer/5562066>)  
 (검색일자:2014년 5월3일)



<그림 2> 최후의 심판  
 (출처-이은기, 김미정, 2012, p.134)



<그림 3> 지배자 예수  
 (출처-이은기, 김미정, 2012, p.131)



<그림 4> 세속적인 쾌락의  
 정원-히에로니무스 보슈  
 (출처-이은기, 김미정, 2012, p.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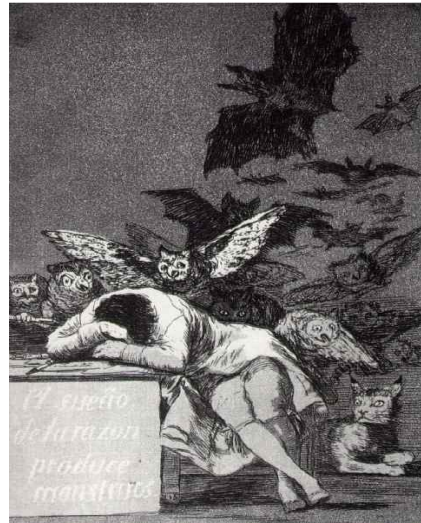
<그림 5> 최후의 심판- 히에로니무스 보슈  
 (출처-윌터 보싱 저/ 김병화 역, 2007, p.134)



<그림 6> 죽음의 승리- 대 피터 브뤼헬  
 (출처-로제 마리 하겐, 라이너 하겐 저/ 김영선 역, 2007, p.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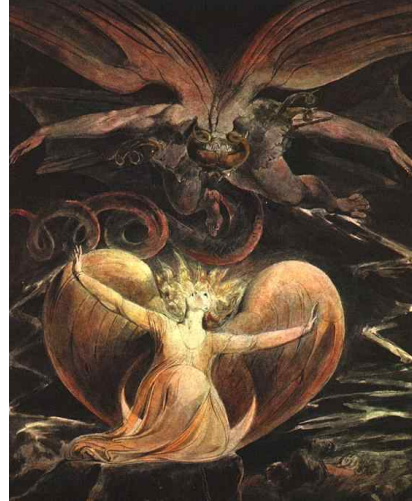
<그림 7>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 엘 그레코  
 (출처-이에인 잭잭 저/ 유영석 역, 2008, p.85)



<그림 8> 잠자는 이성은 괴물을 깨운다- 고야  
 (출처-이은기, 김미정, 2012, p.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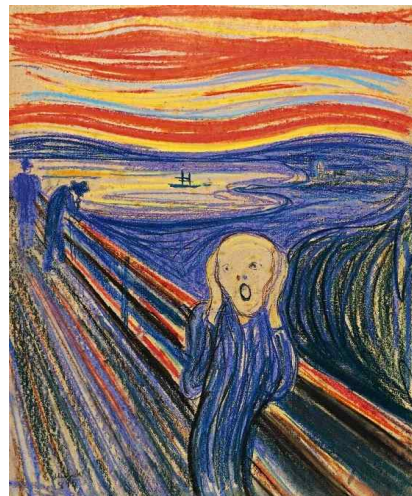
<그림 9>악몽- 존 헨리 퀴슬리  
(출처-이은기, 김미정, 2012, p.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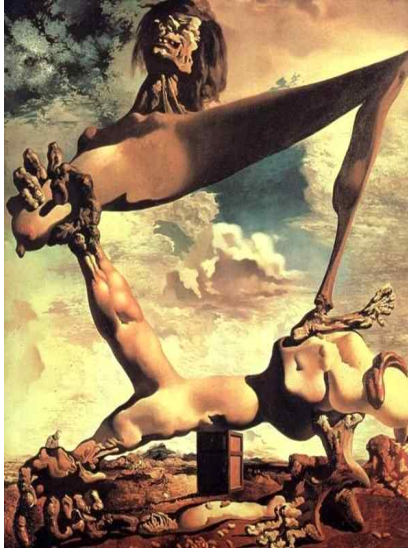
<그림 10>거대한 용과 싸우는 태양의 옷을 두른 여인- 윌리엄 블레이크  
(출처-이은기, 김미정, 2012, p.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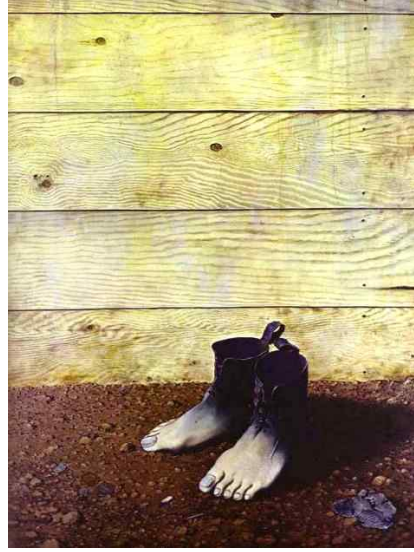
<그림 11> 키스- 구스타프 클림트  
(출처-마테오 키니 저/ 윤옥영 역, 2007, p.77)



<그림 12> 절규- 뭉크  
(출처-임두빈, 2013, p.285)



<그림 14> 내란의 예감-  
살바도르 달리  
(출처-로버트 휴즈 저/ 박누리 역,  
2008, p.177)



<그림 13> 붉은 모델- 르네  
마그리트  
(출처-마르셀 파케 저/ 김영선 역,  
2008, p.59)

## 2. 그로테스크의 특성

19세기 말 여러 이론가들의 그로테스크에 대한 규정은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며, 그로테스크 이론에 대한 새로운 범주를 규정하게 되었고, 그로테스크의 본질적 개념을 파헤침으로써 그 개념의 의미를 더 확고히 하고 있다.<sup>57)</sup> 현대에서의 그로테스크는 가상의 영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며,<sup>58)</sup> 포스트모더니즘의 확산과 함께 대두된 카이저의 포스트모던 그로테스크는 신체와 심리를 통하여 표현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그로테스크의 개념을 전개한 이론가들의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로테스크의 현대적 정의를 시도한 필립툰슨과 신체를 통해 표현되는 그로테스크의 특징인 미하일 바흐친의 카니발 그로테스크(Carnival Grotesque)와 매리 루소(Mary Russo)의 언캐니 그로테스크(Uncanny Grotesque)<sup>59)</sup>의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 1) 필립 톰슨의 그로테스크

필립 톰슨의 저서 *The Grotesque*에서의 그로테스크 형태는 분리된 영역의 혼합 속에서 정적인 것의 파괴, 동일성의 상실, 자연스러운 균형의 파괴, 물질계의 붕괴, 질서의 해체, 개성적 개념의 파괴, 역사적 순리의 분열에서 엿볼 수 있다.<sup>60)</sup> 필립 톰슨은 문학작품에 나타난 그로테스크한 장면과 묘사를 바탕으로 의미와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그로테스크는 기괴하고 메스꺼우면서도 희극적이고 유쾌한 반응을 일으키는 어떤 것, “무섭게 소름끼치는 내용과 희극적인 표현양식 사이의 충돌”이 빚어내는 감흥이라 하였다.<sup>61)</sup>

---

57) 이정인 (2007), 전계서, p.13.

58) 조영아 (2013), 전계서, p.22.

59) 박은경 (2003), 전계서, p.89.

60) 정웅 (2012), 「게임 컨셉 일러스트레이션에 표현된 그로테스크 이미지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

필립 톰슨은 그로테스크의 현대적 정의를 네 가지로 분류하여 규정하였다. 그 첫 번째로 ‘갈등’과 ‘충돌’, ‘이질적인 것의 결합’ 혹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들의 융합으로 인한 부조화’를 들었으며, 두 번째로 ‘아이러니(irony)와 패러독스(paradox)와 같은 갈등이나 대립을 수반한 희극적이며 동시에 끔찍한 것’이라 규정하였다. 세 번째는 ‘정상적인 것을 벗어난 과장과 극단’, 그리고 ‘공상적이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우리의 당면현실’이라는 것을 들었으며 마지막으로 ‘재미와 혐오, 웃음과 공포, 유쾌함과 불쾌함을 동시에 체험하는 비정상성’으로 규정하였다.<sup>62)</sup>

필립톰슨의 그로테스크에서 그로테스크의 형태는 분리된 영역의 혼합 속에서 정적인 것의 파괴, 동일성의 상실, 자연스러운 균형의 파괴, 물질계의 붕괴, 질서의 해체, 개성적 개념의 파괴, 역사적 순리의 분열 등에서 엿볼 수 있다.<sup>63)</sup> 필립톰슨은 그로테스크의 특성을 부조화, 극단과 과장, 비정상성, 웃음과 공포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 (1) 부조화성

부조화성은 소재의 갈등, 충돌, 이질적인 것의 혼합, 혹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들의 어울리지 않는 융합을 들 수 있다.<sup>64)</sup> 인간과 비인간의 결합, 남성과 여성의 모호한 표현 등과 같이 불균형과 기이함이 이에 속한다.<sup>65)</sup> 이러한 부조화는 작품 자체가 유발하는 반응과 예술가의 창조적 기질, 심리적 구조에서도 나타난다.<sup>66)</sup> 왜곡이나 불일치, 과장과 어리둥절함, 패러독스와 비이성적인 것을 사용하는 그로테스크는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부조리를 폭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sup>67)</sup> 예술작품에서의 이런 부조화는 작품 자체에서 뿐 아니라 작품이 유

61) 김유경 (2002), 「무대의상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이미지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9.

62) 필립톰슨 지/ 김영무 역 (1986), 「그로테스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14.

63) 정웅 (2012), 전게서, p.11.

64) 윤성혜 (2007), 「그로테스크 표현을 통한 World of Warcraft와 리니지II의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

65) 이선화 (2011), 전게서, p.37.

66) 장미숙 외 1명 (2000), 「1990년대 후반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복식 26(3), p.439.

발하는 반응 속에서, 그리고 예술가의 창조적 기질과 심리적 구조 속에서 발견되어 왔다는 점이 중요하다.<sup>68)</sup>

## (2) 극단과 과장

그로테스크는 정상적인 것을 벗어나 극단되고 과장되게 그려지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그로테스크한 세계가 공상적인 것과 친화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그 자체로서가 아닌 현실과의 뒤얽힘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보았다.<sup>69)</sup> ‘공상적’인 것이 단순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한다면 그로테스크가 공상적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sup>70)</sup> 그로테스크는 현실과 비현실의 의식적인 뒤얽힘이며, 이러한 왜곡과 과장을 통한 공상적인 세계의 표현으로 인해 현실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이 점이 그로테스크를 강력하게 만든다.<sup>71)</sup> 이러한 특징은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초현실주의자들은 어두운 예술을 검은 유머(Schwarzer humor)로 계획한다. 이러한 특성은 문학과 예술 전반에 모습을 드러내는 원천으로 작용하여 아트메이크업에서도 그로테스크적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sup>72)</sup>

## (3) 비정상성

그로테스크에 대한 고전적인 반응은 부분적으로 또는 대단히 비정상적인 것에 대한 반응을 들 수 있다.<sup>73)</sup> 비정상성이란, 정상상태를 벗어난 부자연스러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습거나 또는 무섭거나 역겨울 수도 있다. 비정상적인 것은 부차적 요소의 하나이며, 무척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의 작품과 반응 속에서의 해결 안 된 충돌’에 비하면 보조적인 것이다.<sup>74)</sup> 비

---

67) 이영희 (2010), 전계서, p.350.

68) 정웅 (2012), 전계서, p.11.

69) 장미숙 (2000), 전계서, p.439.

70) 필립툼슨 저/ 김영무 역 (1986), 전계서, p.31.

71) 김유경 (2002), 전계서, p.22.

72) 이영희 (2010), 전계서, p.350.

73) 정웅 (2012), 전계서, p.13.

74) 필립툼슨 저/ 김영무 역 (1986), 전계서, p.36.

정상의 정도가 지나치면 친숙하지 않은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로 바뀌며 규범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 느끼는 쾌감은 규범들이 심각하게 위협받거나 공격당했다 여겨지면 곧 공포가 된다.<sup>75)</sup> 따라서 그로테스크는 일종의 희극적인 요소들이 담긴 여러 모순들의 해결되지 않은 충돌이며 양면성을 지닌 비정상성이라고 할 수 있다.<sup>76)</sup> 바흐친은 기형적인 신체로부터 그로테스크의 비정상성을 지적하며, 신체구조가 비합리적, 비정상적, 비체계적으로 형상화되어 신체의 특정 부분이 생략, 반복되거나 특정 형태의 위치나 방향 전환, 모순과 결합을 통해 신체를 왜곡시킴으로써 우습거나 또는 공포스럽게 표현된다고 하였다.<sup>77)</sup> 필립 톰슨은 이러한 양면적 체험 즉, 재미와 혐오, 웃음과 공포, 유쾌함과 불쾌함을 동시에 체험하는 것을 비정상적인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았다.<sup>78)</sup>

#### (4) 웃음과 공포

그로테스크는 항상 웃음과 공포가 연관되어 논해져 왔으나, 혼합형식으로 보려는 경향은 비교적 최근의 것이다.<sup>79)</sup> 현대에 이르러 혼합형식을 띠게 되면서 그 안에서의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내재한다는 것이 다른 문학양식이나 범주들과 구별 짓는 그로테스크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들 수 있다.<sup>80)</sup>

그로테스크를 희극의 하부형태로 보는 사람들은 익살맞은 풍자나 천박한 우스개와 같은 것으로 순쉽게 분류하며 끔찍스러운 면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괴기와 신비, 초자연적인 것의 영역으로 옮겨놓는다.<sup>81)</sup> 카이저는 그로테스크를 무시무시한 이미지를 강조하여 예술의 불합리하고 초자연적인 영역을 묘사하고, 삶과 죽음의 공포를 표현하며 적대적, 소외적, 비인간적인 특성을 묘사함으로써 나타나는 음울하고 공포스러운 것이라고 하였다.<sup>82)</sup>

75) 장미숙 (2000), 전게서, p.439.

76) 김유경 (2002), 전게서, p.22.

77) 이선화 (2011), 전게서, p.37.

78) 장미숙 (2000), 전게서, p.439.

79) 상게서.

80) 정웅 (2012), 전게서, p.12.

81) 필립톰슨 저/ 김영무 역 (1986), 전게서, p.28.

82) 이선화 (2011), 전게서, p.37.

그로테스크의 웃음은 현대사회의 모순을 고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랄하며 경멸적이고 악마적인 특성을 갖는다.<sup>83)</sup> 희극적이거나 혹은 끔찍스러움으로, 그 끔찍스러운 것을 강조하는 것은 괴기나 신비, 초자연적인 영역까지 이어진다. 소름끼치며 공포스러워 보이는 것들이 담담하면서 차분하게 유지되는 것이 불균형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sup>84)</sup>

이와 같이 그로테스크는 공포와 희극 사이에 어떤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웃음이 압도하면 그로테스크는 무해한 것이 되고, 무서움이 압도하면 그로테스크는 거부감을 통해 웃음의 효과를 상실하게 된다.<sup>85)</sup>

## 2) 미하일 바흐친의 카니발 그로테스크

1990년대 현대 미술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절단되고 변형되어진 그로테스크 성향이 짙은 신체는 미의 개념으로 재현되어야 할 대상이 아닌 변형되고 왜곡되어 변방의 범주인 추의 개념으로, 작업을 하는 성향이 많아져 관중들에게 희극적인 요소와 섬뜩한 요소로 전달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sup>86)</sup> 현대 그로테스크 담론은 신체적 담론이자 정치적 담론이며 정상을 벗어나는 ‘그로테스크한 바디’는 단순히 신체적 기형 이상의 모반적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정치적 신체로서의 그로테스크가 바로 바흐친의 카니발 이론의 주제이다.<sup>87)</sup>

카니발레스크는 바흐친이 수립한 개념으로, 유머와 무질서로 공식문화와 전통적인 위계질서와 가치를 의도적으로 전복시키는 중세 카니발적 문학양식을 말하며, 함축적으로는 “카니발화된 태도나 정신”을 의미한다.<sup>88)</sup>

바흐친은 라블레의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을 분석한 <라블레와 그의 세계>에

83) 이정후 (1988), 「포스트모더니즘에 나타난 불확정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16.

84) 이영희 (2010), 전계서, p.350.

85) 김유경 (2002), 전계서, p.21.

86) 김호, 김재웅 (2009), 「크리스 커닝햄의 작품에서 표현된 그로테스크 신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2), p.175.

87) 김홍희 (1998), 전계서, p.282.

88) 황혜진 (2013), 「현대패션에 나타난 카니발레스크 이미지와 의미해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7.

서 형식주의 모던 그로테스크를 초월하는 카니발 그로테스크를 대두시킴으로써 사회적, 정치적 차원을 함축하는 새로운 그로테스크 이론을 전개했다.<sup>89)</sup> 바흐친의 카니발 그로테스크는 물질적인 신체에 초점 맞추어져 있으며 의식적인 불거리인 쇼와 댄스, 외설과 언어, 풍자가 이에 포함된다. 본질적으로 큰 범주에서의 카니발 그로테스크는 먹고 마시거나, 성욕, 배설과 같은 쾌락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sup>90)</sup>

그로테스크 바디는 신체의 구멍들, 오목한 곳, 돌출된 곳, 외부로 향해 열려 있거나 외부와 가장 근접한 부위들을 선호하며 그로테스크 바디의 특징은 그 자체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침범하고 능가하면서 다른 제2의 신체를 창조하는 생성의 행위 속에 있는 ‘이중신체’라는 점을 들 수 있다.<sup>91)</sup> 이상과 같이 출생과 성장의 모든 찌꺼기로부터 정화된 듯한 고전적 신체 이미지들과의 대립을 통해 카니발 그로테스크의 웃음은 유쾌하고 환호하는 동시에 조소적이며, 부정하는 동시에 긍정하는 양면적 가치를 지닌다.<sup>92)</sup>

카니발 그로테스크는 고전 신체, 형이상학 신체, 모던 신체, 예술적 신체가 거부하는 저속하고 형이하학적이고 물질적인 신체를 선호함으로써 카니발 그로테스크는 반 고전주의, 반 모더니즘이라는 반항적이고 위반적인 정치적 의미를 획득한다.<sup>93)</sup>

### 3) 매리 루소의 언캐니 그로테스크

언캐니(Uncanny)는 ‘기이한 느낌’을 뜻하는 단어로 정신분석용어사전에 따르면 초기 유아기에 가졌던 전능적 사고에 대한 믿음을 확인시켜 주고 물활론적 사고 양식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경험의 순간에 느껴지는 두렵고 낯선

89) 김부영 (2002), 「현대미술에 나타난 신체성에 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3.

90) 김호, 김재웅 (2009), 전계서, p.175.

91) 김홍희 (1998), 전계서, p.284.

92) 박은경 (2003), 전계서, p.89.

93) 김홍희 (1998), 전계서, p.285.

감정<sup>94)</sup>을 묘사하는 말이다.

언캐니는 ‘엄청난, 무시무시해서 기분이 나쁜, 괴기한, 신비스러운’의 의미를 가졌으며 독일어의 unheimlich에 해당되는 단어이다.<sup>95)</sup> ‘친근한’, ‘집같은’, ‘낯익은’ 이라는 뜻을 가진 캐니(canny)와 낯설은, 두려운, 놀라운 이라는 뜻을 가진 언캐니는 반대의 의미를 가졌지만 집이란 고향이며 친숙함이나 이방인에게는 두렵고 신기한 것으로 보인다.<sup>96)</sup> 따라서 언캐니는 캐니에 종속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카니발 그로테스크가 신체적이고 물질적인 범주에 속한 것이라면 언캐니 그로테스크는 심리적인 범주에 속한다. 언캐니 그로테스크는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감과 음울함, 실망감과 억압을 의미하며 매리루소가 소외개념을 토대로 카이저의 모던 그로테스크의 개념과 프로이드(Freud)의 언캐니의 개념을 사용하여 언캐니 그로테스크를 완성하였다.<sup>97)</sup>

프로이드는 익숙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친숙한 것으로 알고 지냈던 것에 대해서도 인간은 언캐니한 공포감을 느낀다고 강조한다. 언캐니는 원래 친숙한 것이 억압되었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낯설고 두려운 대상으로 느껴진다. 따라서 언캐니 그로테스크는 정신분석학적 범주로 설정된 것으로 ‘섬뜩하고 무서운 느낌의 심리 범주’라 할 수 있다.<sup>98)</sup> 왁스로 만든 인물형상의 존재가 살아있는 것인지, 반대로 생명 없는 대상이 정말로 활력이 없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때 언캐니한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인간과 자동인형의 구별을 흐려놓기 때문이다.<sup>99)</sup> 그 밖에도 죽음, 망령과 같은 초자연적인 것에서도 언캐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카이저의 모던 그로테스크 이론은 친숙한 세계가 갑자기 낯설어지는 언캐니

---

94)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55787&cid=1137&categoryId=1137> (2014년 6월 15일)

95) 김지혜 (2001), 「현대미술에 나타난 신체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5.

96) 선영란 (2008), 「영국현대미술에서 나타나는 신체이미지의 특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9.

97) 김호, 김재웅 (2009), 전개서, p.176.

98) 선영란 (2008), 전개서, p.69.

99) 김지혜 (2001), 전개서, p.26.

한 특수성질을 가지며 이는 낯설어 보이는 소외된 세계에 대한 감정으로, 이러한 감정이 카이저가 말하는 그로테스크라 할 수 있다.<sup>100)</sup> 카이저의 모던 그로테스크 개념은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삶과 죽음을 하나의 연결개념으로 파악하는 카니발과 달리 죽음과 생을 분리된다는 것과 그로테스크한 형태로 나타나는 고통과 혼합되는 폭소는 풍자의 성질을 갖고 있으며 결국 악마적인 것이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sup>101)</sup>

프로이드는 논고 ‘엔캐니’에서 공포에 관계되어 공포를 유발하는 엔캐니한 특수한 느낌을 연구하였으며, 아름다움을 연구범위로 하는 미학에서 숭고함과 기쁨, 감동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측면, 괴기함, 공포의 대상 역시 연구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sup>102)</sup>

신체에 대한 이상적 재현에 반대가 되는 수치스러움, 비천한, 불경스러움은 인간의 폭력성을 보여주며, 독일 베니스 그룹과 같은 극단적인 신체의 역겨움 보다는 완화된 금기의 위협을 통한 엔캐니 그로테스크를 자아낸다.<sup>103)</sup>

바흐친의 카니발 그로테스크와 카이저/프로이드의 엔캐니 그로테스크는 서로 강조점이 다르고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지만, 루소가 언급하듯이, 양자가 대립되는 절대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상호적인 개념들이다. 카니발이 신체를, 엔캐니가 심리적인 것을, 총체적 인간을 만드는 하나의 양면이라고 생각할 때에 이 양자의 그로테스크를 대립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게 된다.<sup>104)</sup>

---

100) 상계서.

101) 김홍희 (1998), 전계서, p.286.

102) 홍근영 (2012), 「현대조각에서 신체를 통한 감정표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

103) 선영란 (2008), 전계서, p.69.

104) 김홍희 (1998), 전계서. p.290.

### 3. 크리스 쿡시 작품분석

본 장에서는 미국 초현실주의 작가 크리스 쿡시에 대해 알아보고, 작품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특징을 필립툼슨이 분류한 그로테스크 특성으로 작품분석을 하고자 한다. 작품분석을 통하여 8가지 작품을 선정 후 선정된 크리스 쿡시의 작품을 모티브로 아트메이크업 작품을 제작하려고 한다.

#### 1) 크리스 쿡시 생애

크리스 쿡시(1973 ~ )는 미국의 미주리(Missouri) 주에서 3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으며, 사회공포증이 있었던 어머니, 두 형제들과 유년시절을 캔자스의 고립된 시골에서 자랐다.<sup>105)</sup>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즐겨 그렸던 크리스 쿡시는 고등학교 시절 미술반에서 본인의 작품을 선보여 동급생들로부터 재능을 인정받기 시작하였으며, 미술 선생님의 격려로 대학 진학과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sup>106)</sup>

초기의 작품은 페인팅과 드로잉이 전부였지만, 조형에 관심이 생기며 그 이후 작품 영역을 3D작업까지 확장시켰다.<sup>107)</sup> 현재 크리스 쿡시는 아상블라주 기법을 이용한 조형미술과 페인팅, 드로잉 작품을 제작하며, 이 모든 작품에서는 그로테스크한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크리스 쿡시는 작품을 통하여 삶과 죽음, 종교와 전쟁, 여성과 남성과 같은 인류의 관심사이며 동시에 반대되는 주제를 하나의 작품에 왜곡되고 변형된 형태로 동시에 표현한다.<sup>108)</sup> 작품에서 나타나는 그로테스크적 표현은 무의미한 공포, 끔찍함, 괴기스러움 뿐 아니라 삶과 죽음, 종교와 전쟁, 물질과 욕망을 나

---

105) 조슈아라이너갤러리. <http://www.joshualinergallery.com/> (2014년 3월 21일)

106) Jon Beinart (2010), 「Kris Kuksi: Division and Delusion」, Brunswick North: Bein Art publishing by Jon BeinArt., p.3.

107) 조슈아라이너갤러리. <http://www.joshualinergallery.com/> (2014년 3월 21일)

108) Jon Beinart (2010), 전게서, p.5.

타내고 있으며, 본인 작품을 통해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워주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sup>109)</sup>

크리스 쿡시는 영화제작도 참여하고 있으며 새도우 헌터스: 뼈의 도시(The Mortal Unstruments City is Bones,2013)<sup>110)</sup>와 같은 판타지 영화에서도 조형 작품을 볼 수 있다.

## 2) 크리스 쿡시 작품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크리스 쿡시의 작품은 기계적인 물건에서 영감을 얻은 후, 바로크와 로코코 양식의 우아하면서도 조화로운 디자인과 반대되도록 기괴하고 섬뜩하게 모든 재료들을 연결하여 작품을 만드는 특징이 있다.<sup>111)</sup> 작품에서는 빛과 어두움처럼 상반되는 두 개의 컨셉을 조화롭고 균형이 맞게 연결을 시켜 보여준다.<sup>112)</sup> 본 장에서는 크리스 쿡시의 작품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의 표현 특성을 필립 톰슨의 그로테스크 특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이질적인 부조화성 이미지

부조화성은 소재의 갈등, 충돌, 이질적인 것의 혼합, 혹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들의 어울리지 않는 융합을 들 수 있으며,<sup>113)</sup> 인간과 비인간의 결합, 남성과 여성의 모호한 표현 등과 같이 불균형과 기이함이 이에 속한다.<sup>114)</sup> 크리스 쿡시의 조형 작품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결합, 자연과 기계의 결합, 이질적인 소재의 결합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그로테스크 특성 중 부조화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림 15)와 같이 수탉의 몸에 사람의 얼굴을 합쳐 독자적인 단일체로

---

109) 조슈아라이너갤러리. <http://www.joshualinergallery.com/> (2014년 4월 5일)

110) The Hays Daily News 기사 원문. <http://hdnews.net/news/Kuksi082713/> (2014년 5월 3일)

111) 조슈아라이너갤러리. <http://joshualinergallery.com/> (2014년 5월 3일)

112) Jon Beinart (2010), 전개서, p.7.

113) 윤성혜 (2007), 「그로테스크 표현을 통한 World of Warcraft와 리니지II의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

114) 이선화 (2011), 전개서, p.37.

보이게 하거나 (그림 16)과 같이 어울리지 않는 두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조형물로 만들어 교회의 공격성을 풍자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sup>115)</sup> <그림 17>에서도 부조화적인 특성을 볼 수 있는데 해골과 식물의 줄기를 하나로 합쳐 하나의 단일체로 보다. 이처럼 부조화성이 나타난 작품에서는 인간과 비인간, 교회와 종교 등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두 소재를 선택하여 부조화적인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 (2) 극단과 과장의 이미지

신체에 가해진 형태의 변형과 파괴에 의한 그로테스크 이미지는 잔인하며 공포로 인한 충격효과를 유발하며 파괴적인 내적 의미를 갖는다.<sup>116)</sup>

<그림 18>에서는 임신한 여성과 양쪽으로 손을 잡고 있는 아이 2명이 마치 투명하게 비추듯 신체의 왜곡된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여성의 양쪽으로 있는 양은 천사의 날개를 하고 있지만 모습이 흡사 악마와 같으며 속까지 비춰 보이는 여성의 왜곡된 몸통은 보는 이로 하여금 공포스럽게 만든다. <그림 19>는 살아있는 인간의 얼굴과 앙상한 뼈만 남은 몸을 합쳐놓아 형태를 변형시켜 관람자로 하여금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 없게 만든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을 붙인 것인지, 죽은 사람의 백골에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을 붙인 것인지 알 수 없는 이미지는 보는 이로 하여금 섬뜩함을 주고 있다.

## (3) 웃음과 공포의 이미지

유희적 이미지는 신체의 형태를 왜곡, 과장하여 비정상적이고 기묘하게 만들며 기묘한 디자인은 비정상적인 웃음, 기괴한 분위기를 나타낸다. 원색과 우스꽝스러운 표정의 사물을 의인화시켜 웃음과 공포를 동시에 자아낸다.<sup>117)</sup>

---

115) Jon Beinart (2010), 전게서, p.5

116) 이영희 (2010), 전게서, p.357.

117) 상게서, p.359.

크리스 쿡시의 작품 (그림 20)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루시퍼의 모습이 다. 웃음과 공포의 특징으로 악마적 이미지를 들 수 있는데, 루시퍼의 섬뜩한 얼굴에 중년남성을 연상시키는 신체는 웃음을 유발하는 동시에 공포를 자아낸다. <그림 21>에서는 의인화된 오랑우탄과 사람의 몸이 결합되어 전갈을 들고서 있는 그림으로 사람이 탈을 쓴 것인지, 동물의 사람의 옷을 걸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기묘한 모습은 웃음을 유발한다. 이처럼 웃음과 공포의 특징으로는 원색을 사용함과 동시에 동물과 악마를 의인화시켜 웃음과 공포를 동시에 자아낸다는 것을 들 수 있다.

#### (4) 과장된 비정상성 이미지

비정상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작품에서는 기형성과 불균형이 나타나며 보는 이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한다.<sup>118)</sup> 비정상적인 이미지에는 신체구조가 비합리적, 비정상적, 비체계적으로 형상화되어 신체의 특정 부분이 생략, 반복되거나 특정 형태의 위치나 방향 전환, 모순과 결합을 통해 신체를 왜곡시킴으로써 우습거나 또는 공포스럽게 표현된다.<sup>119)</sup> 크리스 쿡시의 작품 (그림 22)에서는 여성의 머리를 신체에서 분리시켜놓아 마치 하나의 장식품처럼 작품을 만들었다. 이는 비정상성의 특징으로 신체구조가 비정상적으로 생략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여성의 머리카락은 나뭇잎처럼 거칠고 메마른 느낌으로 표현이 되었으며, 머리카락의 끝은 넝쿨모양과 같이 변하여 하나의 장식품과 같아 생명인 것 같으면서도 무생물인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림 23>도 여성의 머리와 손을 분리시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었으며 여기에서도 신체가 비정상적으로 분리가 되며 비정상적 이미지의 특징이 보여진다. 그리스 신화에서 반인반수로 나오는 델푸네는 하반신의 뱀 모습이 작품에서는 머리카락으로 표현된 듯하다. 구불거리는 굵은 곡선의 머리카락은 마치 메두사처럼 머리에서 뱀이 꿈틀거리는 느낌을 자아낸다.

---

118) 이선화 (2011), 전계서, p.38.

119) 상계서, p.37.

<그림 24>에서는 상반신의 일부가 잘린 동시에 잘린 부위에서 기계적인 꽃이 피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비정상성 이미지의 신체의 비정상성적으로 생략되었으며 잘린 부분의 꽃으로 결합되어 있다. 귀와 등에서 자라난 잎사귀는 기형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그림 15> A rather Noble Cock  
(출처-Kris Kuksi, 2010, p.65)



<그림 16> Churchtank Type8  
(출처-<http://www.kuksi.com>)  
(검색일자: 2014년 4월 5일)



<그림 17> Anatomic Fabrica  
(출처-<http://www.kuksi.com>)  
(검색일자: 2014년 4월 5일)



<그림 18> Immaculate Conception  
(출처-<http://www.kuksi.com>)  
(검색일자: 2014년 4월 5일)



<그림 19> song for Irina  
(출처-<http://www.kuksi.com>)  
(검색일자: 2014년 4월 5일)



<그림 20> The Throne of  
Lucifer  
(출처-<http://www.kuksi.com>)  
(검색일자: 2014년 4월 5일)



<그림 21> Orangutan the  
Messenger  
(출처-<http://www.kuksi.com>)  
(검색일자: 2014년 4월 5일)



<그림 22> Portrait of an ethereal  
woman  
(출처-<http://www.kuksi.com>)  
(검색일자: 2014년 4월 5일)



<그림 23> Delphyne  
(출처-<http://www.kuksi.com>)  
(검색일자: 2014년 4월 5일)



<그림 24>Adagio  
(출처-Kris Kuksi, 2010, p.6)

크리스 쿡시의 작품을 그로테스크 특성에 따라 나누어 살펴본 것은 <표 1>과 같다.

<표 1> 그로테스크 특성에 따른 크리스 쿡시 작품 분류

그로테스크 특성	작품에 나타난 특성	작품 분류
부조화	인간과 동물/ 인간과 기계 같은 이질적인 결합	
극단과 과장	왜곡, 과장되고 극단된 표현	
웃음과 공포	희극적이며 동시에 기괴한 분위기를 연출	
비정상성	신체의 변형 및 왜곡 비인간적 이미지	

## 4. 아트메이크업의 이론적 고찰

### 1) 아트메이크업의 정의

아트메이크업은 예술을 뜻하는 ‘ART’와 화장을 뜻하는 ‘MAKEUP’의 합성어<sup>120)</sup>로 캔버스가 아닌 사람의 얼굴, 또는 신체를 이용하여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를 화장도구나 수성물감, 장신구를 이용하여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아트 메이크업은 자신의 생각이나 주제를 표현하거나 창의적으로 이미지화하는 작업으로 미술과 인간이 조화된 독창적 예술<sup>121)</sup>로서 승화시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서 아트메이크업은 단순히 작가의 생각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순수예술을 넘어 예술 또한 금전적 가치가 될 수 있는 상업예술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일회성에 그치던 것에서 벗어나 대중매체와 결합을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예술적 측면뿐 아니라 쇼, 광고, 홍보 등 상업적인 측면으로 확대되어지고 있다.<sup>122)</sup>

이처럼 아트메이크업은 다양한 스타일의 공존과 혼합을 통해 기존의 스타일을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다채롭게 융화하여 새로운 스타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123)</sup>

---

120) 강현신 (2011), 「아트 메이크업에 표현된 큐비즘 이미지」,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121) 김민정, 임지영 (2012), 「현대 미술이 응용된 아트메이크업의 표현 특성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8(3), p.60.

122) 이규리 (2012), 「입체주의적 폴라쥬 특성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연구: 파피에 콜레 기법」,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5.

123) 이규리 (2012), 전게서, p.35.

## 2) 아트메이크업의 유형

본 장에서는 아트메이크업의 유형을 페이스 페인팅, 판타지 메이크업, 바디페인팅 세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 (1) 페이스 페인팅

페이스페인팅(Face Painting)은 사람의 얼굴에 화장용 물감을 이용하여 포인트를 주듯 작은 부위에 그리거나 얼굴 전체에 그리기도 하는 형태로서 얼굴을 도구로 이용하는 작품이다.<sup>124)</sup> 페이스페인팅의 기원은 수천 년 전으로 올라가는데, 그 기원은 켈트, 고대 이집트, 그리고 미국의 인디언들에게서 볼 수 있다. 원주민들은 주로 같은 부족임을 알리기 위함이나 종교적인 의식 및 행사, 사냥시 위장, 그리고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경우 적으로부터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각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sup>125)</sup>

현대에서 페이스페인팅은 무대공연이나 쇼, 행사에서의 퍼포먼스, 퍼레이드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그림 25>와 같은 정치적 시위(political protest)와 같은 특정 목적을 가진 가두 및 군중집회에서도 사용된다. 그 밖에 어린이날과 같은 축제나 기념일에도 페이스페인팅을 통해 그날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최근에 들어 대형 기업에서 페이스페인팅을 기업 비즈니스로 연결시켜 제품을 홍보하는데 이용하기도 한다. 개인의 얼굴 또는 머리를 빌려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신제품 홍보에 활용하거나 (그림 26)와 같이 얼굴에 로고를 그려 광고로 내기도 하는데, 사람이 다니는 곳곳마다 거리에서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색광고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

124) 김영숙 (2003), 「오브제를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의 표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8.

125) 파티페이스. [www.party-faces.com/history-of-facepainting.html/](http://www.party-faces.com/history-of-facepainting.html/) (2014년 3월 5일)

## (2) 판타지 메이크업

아트 메이크업의 표현 유형의 한 형태인 판타지 메이크업(Fantasy Makeup)은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화려하고 과장되게 이미지를 표현하여 작품의 효과를 높이는 기법이다.<sup>126)</sup> 판타지 메이크업은 메이크업의 분야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작가의 풍부한 상상력을 필요로 하며 초현실주의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sup>127)</sup>

작품을 나타내는데 판타지 메이크업은 다른 유형의 아트메이크업에 비해 소재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단순하게 수정, 유성물감 뿐 만 아니라 <그림 27>과 같이 글리터와 스톤, 종이, 패브릭, 깃털, 나뭇가지 등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오브제로 사용되어 화려하면서도 강한, 신비로운 이미지 표현이 가능하다.

판타지메이크업은 주로 형상화 된 무언가를 직접 나타내는 경우보다는 그 주제를 모티브로 하여 자신의 상상 속의 이미지와 합쳐 추상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작가의 독창적인 상상력을 일정한 틀이나 제한 없이 일상적인 메이크업에서 벗어나 예술적 감각과 환상적인 느낌을 형상화 시키는 구체적인 작업이 필요하다.<sup>128)</sup> 작품에 맞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은 이미지 툴을 사용하여 완성도를 높이기도 한다. 아트메이크업의 유형 중 가장 창의적이며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작품을 나타낼 수 있는 판타지메이크업은 인간의 상상력을 메이크업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초현실주의와도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다.<sup>129)</sup>

## (3) 바디 페인팅

사람의 얼굴을 포함한 몸 전체를 캔버스로 이용하여 작품을 나타내는 바디페

---

126) 한명숙 (1999), 「마귀아쥬예술」, 서울: 청구문화사, p.185.

127) 박정원 (2006), 「환타지 메이크업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적 특성」, 한복문화 9(3), p.161.

128) 맹월 (2011), 「레이스를 이용한 아트 메이크업의 조형성」,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

129) 김연아 (2012), 「라팔 올빈스키의 데페이즈망 기법을 활용한 아트메이크업 작품제작」,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8.

인팅(Body Painting)은 신체를 매개로 하는 예술, 즉 바디아트에 속하며 인간의 내적 이미지 세계를 얼굴에서 신체로까지 넓은 미적 표현<sup>130)</sup>이라고 할 수 있다.

신체에 물감을 이용하여 색칠하는 행위를 일컫는 바디페인팅의 주제는 꽃, 나무와 같은 자연물을 양식화 하거나, 기존 예술작품을 장식화, 작가의 예술적 감성과 메시지를 시각화<sup>131)</sup>하여 나타낸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바디페인팅의 기법으로는 회화적 기법과 에어브러쉬 기법, 일루미네이션 기법 등을 들 수 있다. 신체를 예술의 차원으로 끌어 올리는 바디페인팅은 회화적 요소에 맞추어 작업하며 인간의 육체를 통하여 작품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는 특징이 있다.<sup>132)</sup>

에어브러쉬 기법은 컴프레셔와 에어건을 이용하여 물감을 신체에 분사하는 방법으로 넓은 면을 칠하거나 스텐실을 이용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 에어건을 통해 나온 물감의 입자가 인체에 곱게 뿌려져 채색하는 방법으로 회화적 기법에 비해 색을 곱고 부드럽게 연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일루미네이션의 기법의 경우 사람의 인체에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채색하는 것이 아닌, 사람의 인체에 빔을 쏘아 그림이나 무늬가 투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다른 방식과 차이가 있다. 일루미네이션 기법을 응용한 바디페인팅은 페인팅과 메이크업이 필요없고, 프로젝트에서 투영되는 빛으로만 작업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sup>133)</sup>

바디 페인팅은 신체의 곡선과 면을 살려 입체적으로 표현하며, 그 위에 장식물을 더해 새로운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다. 바디 페인팅은 인체에 그리는 작업이기에 일반 미술작품과 비교했을 때 일회성 작품에 불과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영상매체를 통해 영구적인 작품 보전이 가능하다.<sup>134)</sup>

130) 배기혜 (2009), 「사군자를 응용한 바디페인팅 작품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

131) 친지연 외 (2003), 「Face in Make-up」, 서울: 청구문화사, p.216.

132) 이영희 (2010), 전계서, p.354.

133) 강현신 (2011), 전계서, p.30.

134) 김지은 (2007), 「양리 마티스 작품을 응용한 일러스트레이션과 아트 메이크업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

신체를 예술의 차원으로 끌어 올리는 바디페인팅은 획일화된 미의 개념이 아닌, 원시 이래로 그 가치의 기준점이 달라짐에 따라 다양하고 개성화된 거대한 문화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다.<sup>135)</sup>

현대예술에서의 바디페인팅은 바디페인팅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성격을 활용하여 <그림 28>과 같이 광고, 스테이지, 퍼포먼스 등과 같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바디페인팅은 인간의 몸을 이미지화 또는 형상화시켜 재구성하는 것으로 모델과 관중, 작가가 함께 어우러진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다.<sup>136)</sup>

---

135) 이영희 (2010), 전계서, p.354.

136) 박보영 외2 (2002), 「Make-up art」, 서울: 청구문화사, p.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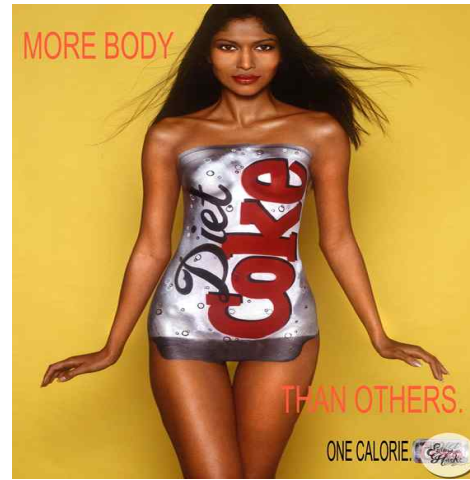
<그림 25> 캠페인 이미지  
 (출처-<http://www.mathrubhumi.com>)  
 검색일자: 2014년 3월 5일



<그림 26> 로고 페이스페인팅  
 이미지  
 (출처-<http://www.fotozup.com>)  
 (검색일자: 2014년 3월 5일)



<그림 27> 판타지 메이크업 이미지  
 (출처- 김남희, 2006, p.118)



<그림 28> 바디페인팅 이미지  
 (출처-<http://www.emmahack.com.au>)  
 (검색일자: 2014년 3월 4일)

### 3) 아트메이크업의 기법

아트메이크업은 인체에 행해지는 메이크업으로 색이나 표현, 주제, 기법, 재료 등에 구속을 받지 않고, 단지 예술적 이미지만을 중시한다.<sup>137)</sup> 아트메이크업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회화적 요소를 이용한 페인팅 기법, 오브제 기법, 액션페인팅기법, 스텐실기법, 에어브러쉬 기법, 디지털페인팅 기법 등이 있다<sup>138)</sup>.

#### (1) 페인팅 기법

페인팅(Painting) 기법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나 곤충, 사물을 주제로 그 대상을 정밀묘사 등의 회화적 요소를 이용한 바디페인팅의 기법으로서 바디페인팅의 표현기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된다.<sup>139)</sup> 또한 정밀묘사 등의 회화적 요소에 충실하게 작업하기 때문에 캔버스 위의 회화작품과 비슷한 이미지를 주기도 하지만 <그림 29>와 같이 인체의 곡선을 고려하여 그림을 그리기에 입체적이며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 더 강하다.

#### (2) 오브제 기법

오브제(Objet)의 미술 사전적 정의는 초현실주의 미술에서 작품에 쓰는 일상 생활 용품이나 자연물, 또는 예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물건을 본래의 용도에 서 분리하여 작품에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느낌을 일으키는 상징적인 기능의 물체를 이르는 말<sup>140)</sup>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뭇잎이나 돌멩이, 깃털과 천 조각 등이 작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오브제에 속할 수 있다. 오브제 기법은 단순하게 그리는 기법이 아닌 물체를 덧붙여 만드는 조형적인 느낌의 작품

137) 이현직 (2002), 「현대 아트메이크업의 회화적 경향과 기법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0.

138) 강현신 (2011), 전제서, p.26.

139) 이현주 (2003), 「피카소의 회화록. 이용한 바디아트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4.

140) 네이버 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7696300/> (2014년 3월 5일)

으로 질감을 표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오브제 메이크업은 (그림 30)과 같이 화장품과 더불어 인체에 표현할 수 있는 스톤, 깃털, 비즈, 패브릭을 이용하여 작품을 표현하며 주제와 어울리는 소재를 선택하여 작업을 한다. 현대에서 아트메이크업은 특수한 재료의 이질적인 소재를 도입하여 조형적이고 예술적인 요소를 부각시켜 창조적인 조형예술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sup>141)</sup>

### (3) 액션페인팅 기법

액션페인팅(Action Painting)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뉴욕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추상회화의 한 경향으로 초반에는 제스처를 중시하거나 드리핑 기법을 사용한 회화를 가리키는 말이었다.<sup>142)</sup> 작품의 결과 보다는 그리는 행위 자체를 중요시 하며, 물감이나 페인트를 브러쉬를 이용하여 뿌리거나 부어서 작품을 만들었다. 유럽의 앵포르멜 미술과 유사개념으로 미국적 전위미술이라 인정받는 추상표현주의에 속한다. 아트메이크업에서의 액션페인팅 기법은 미술에서의 기법과 마찬가지로 페인트나 물감을 뿌리거나 부어서 작품을 표현하는데 캔버스가 아닌 모델에 몸에 물감을 뿌린다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

### (4) 스텐실 기법

스텐실(Stencil)의 사전적 의미는 디자인 기법의 한가지로 종이에 어떤 물체의 모양을 그린 후, 그 그림부분을 잘라내어 구멍을 뚫고 그 위를 잉크나 그림 물감을 묻힌 롤러로 문질러서 물체를 표현하는 방법이다.<sup>143)</sup> 스텐실 기법은 표현하고 싶은 문양이나 기하학적 무늬를 OHP 필름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에 그린 후 구멍을 내어 그 위에 원하는 컬러물감을 이용하여 뿌리거나 찍어서 표현을 하는데, <그림 31>과 같이 일정한 크기의 연속적인 무늬를 표현할 수

141) 이유나 (2011), 「시물라시옹 개념에 의한 바디아트의 시각적 이미지 표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46.

142)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94739&cid=1388&categoryId=1388/>  
(2014년 3월 2일)

143)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135&cid=373&categoryId=373/>  
(2014년 3월 2일)

있다는 특징이 있다. 도안을 여러 번 재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페인팅이나 색감선택에 서툰 경우 스텐실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한 장의 도안으로 여러 가지 색상을 표현하여 은은함과 선명함 등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스텐실 기법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에서는 기초 베이스 위에 스폰지를 이용하여 찍는 방법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나, 에어브러쉬를 이용하여 아름답고 세밀하게 표현하기 위한 보조재료로 사용되기도 한다.<sup>144)</sup>

### (5) 에어브러쉬 기법

에어브러쉬(Air Brush) 기법은 에어건과 컴프레서를 이용하여 에어건에 물감을 넣은 후 색을 분사하는 기법이다. 에어브러쉬 기법은 물감이 에어건의 노즐을 통해 분사되는 형식으로 브러쉬를 이용한 페인팅과 비교했을 때, 자연스러운 채색과 그라데이션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바디페인팅에서 에어브러쉬를 이용한 작업이 많이 늘고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장점과 함께 기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작업자의 수고를 덜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다. <그림 32>와 같이 에어브러쉬와 스텐실을 같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스텐실에 있는 문양위에 에어건으로 물감을 뿌리면 깨끗하고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OHP필름에 새긴 도안이나 망사, 레이스 등 다양한 소재를 스텐실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또한 손으로 나타낼 수 없는 표현이 다양하게 나온다. 단점으로는 기계를 구입해야 된 다는 것과 에어건의 노즐청소 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 (6) 디지털페인팅 기법

현대에 들어 많이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페인팅(Digital Painting) 기법은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기법으로 작가가 의도한 디자인을 이미지들을 이용하여 신체에 그려내는 정교한 작업이다. 컴퓨터 그래픽의 발달로 아

---

144) 김영숙 외 5명 (2006), 「ART MAKE-UP」, 서울: 도서출판 예림, p.73.

날로그 시대의 단순한 기법을 넘어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결합하여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할 작품들이 많이 나타나 표현의 다양성을 가능하게 한다. 21세기 디지털 기술은 디지털아트라는 새로운 예술 분야를 탄생시켰고, 기존의 예술분야와도 접목되어 아날로그방식의 고전적인 예술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가능하며 시각적 효과를 더 사실적으로 표현한다는 특징이 있다.<sup>145)</sup>

---

145) 강현신 (2011), 전계서, p.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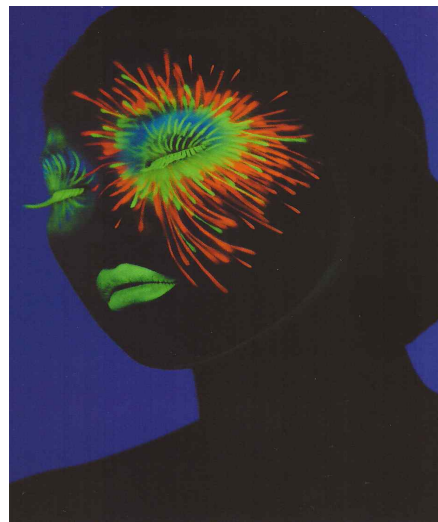
<그림 29> 페인팅기법을 활용한  
메이크업 이미지  
(출처:<http://www.emmahack.com.au>)  
(검색일자: 2014년 3월 4일)



<그림 30>오브제기법을 활용한  
메이크업 이미지  
(출처-김영숙외, 2006, p.28)



<그림 31>스텐실 기법을 활용한  
메이크업 이미지  
(출처-김영숙외, 2006, p.79)



<그림 32> 에어브러쉬 기법을  
활용한 메이크업 이미지  
(출처-김영숙외, 2006, p.86)

### Ⅲ. 작 품

#### 1. 제작의도

본 연구는 초현실주의 작가 크리스 콕시 작품에서 나타나는 그로테스크적인 특징을 응용하여 아트메이크업을 제작하는 방식이다. 크리스 콕시의 작품 중 8가지를 모티브로 선정하여 필립톰슨의 그로테스크 특징인 부조화성, 극단과 과장, 웃음과 공포, 비정상성 네 가지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부조화성은 이질적인 요소, 인간과 동물의 결합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극단과 과장은 정상적인 것을 벗어나 과장되게 그려지는 특징이 있다. 웃음과 공포에는 악마적인 요소의 특징이 있으며, 비정상성에는 신체의 절단과 왜곡 같은 신체변형의 특징이 있다. 따라서 크리스 콕시 작품 중 위의 네 가지 특성에 해당되는 8점을 선정 하였다.

현대 미술 작품에서 나타나는 신체는 미의 개념으로 재현되는 대상이 아닌 변형되고 왜곡된 모습으로 관객들에게 희극적이면서도 섬뜩한 요소를 동시에 전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작품 제작 시 신체를 변형하고 왜곡하여 표현하였으며, 이러한 작품을 통해서 사회를 향한 비판적인 시각과 인간의 내면의 모습 및 사회의 부조리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작품을 보는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일러스트레이터와 어도비 포토샵을 활용하여 아트메이크업이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제로 분리가 어려운 신체에 활용하였다. 작품 계획은 <표 2>와 같다. 작품 I 과 작품 II는 부조화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작품 III은 극단과 과장, 작품IV와 작품V은 웃음과 공포, 작품 VI~VIII은 비정상성과 관련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 2> 그로테스크 특성을 응용한 작품 디자인 계획

구분 특성	크리스 콕시 작품	작품 주제	아이디어 스케치	작품설명 및 제작의도
부조화성		Loss of Identity		현대 사회에서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함.
		Kentauros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켄타우로스를 형상화한 작품.
극단과 과장		Reveal Inner Side		인간의 숨겨진 어두운 내면 표현하고자 함.
웃음과 공포		악마의 웃음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돈이 최고가 되는 사회를 비판하고자 함.
		인형의 꿈		인형처럼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풍자하고자 함.
비정상성		Puzzle		지나온 과거와 다가올 미래를 퍼즐조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고자 함.
		Poker Face		겉과 속이 달라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표현하고자 함.
		Cog wheel		첻바퀴 돌아가듯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을 톱니바퀴로 표현함.

## 2. 작품제작

### 1) 작품 I - Loss of Identity

#### (1) 디자인 의도

작품 I의 ‘Loss of Identity’는 그로테스크 특성 중 부조화성에 해당되는 작품 ‘Anatomic Fabrica’를 재해석한 작품이다. 원작에서 인간의 뼈와 이질적인 무언가가 혼합되어 새로운 단일체로 표현되고 있다. 본 작품 연구 <표 3>에서는 백골대신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에 긴 파이프와 식물이 통과되어 나오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현대 사회에서 정체성을 잃은 현대인들의 슬픈 자화상을 나타내었다. 머리를 뚫고 나오는 긴 파이프는 현대사회를 의미하며, 파이프와 엉켜있는 식물은 그 안에서 자라나는 미약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미를 표현한다.

#### (2) 제작방법

① 스틱 파운데이션을 이용하여 피부 톤을 창백하게 표현한 후 셰이드와 하이라이트를 사용하여 얼굴의 음영을 강하게 표현한다.

② 블랙과 브라운 색도우를 이용하여 눈 주위에 어두우면서도 깊이 감 있는 느낌을 표현하였다. 이마 정 중앙에 뚫린 부분과 관자놀이, 목 부분의 구멍은 입체감을 주기 위해 라텍스를 이용하여 폼을 만든 후 그 위에 블랙과 브라운 색상의 라이닝 컬러와 색도우를 이용하여 덮어 준다.

③ 립은 파운데이션으로 입술 전체를 덮어 폐일하게 표현하여 <그림 35>와 같이 메이크업을 완성한다.

④ 어도비 포토샵을 이용하여 일러스트에 어울리는 배경을 만들어준다.

⑤ 메이크업 완성작을 불러온 후 얼굴부분을 연결하여 <그림 36>과 같이 작품을 완성한다.

<표 3> 작품 I 디자인 일러스트

<p>아이디어 스케치</p>	
<p>주제</p>	<p>Loss of Identity</p>
<p>그로테스크 특성</p>	<p>부조화성(인간과 비인간의 결합)</p>
<p>사용색상</p>	
<p>사용재료</p>	<p>아쿠아컬러, 라이닝컬러, 스틱파운데이션, 글리터</p>



<그림 35> 작품 I 「Loss of Identity」 메이크업



<그림 36> 작품 I 「Loss of Identity」

## 2) 작품 II - Kentauros

### (1) 디자인 의도

작품 II의 “Kentauros”는 그로테스크 특성 중 부조화성에 해당되는 작품“A Rather Noble Cock”을 재해석한 작품이다. 원작은 아상블라주 기법을 활용한 조형미술 작품이다. 작은 폐품조각을 이어 로마시대 장군의 머리에 수탉의 몸통을 연결시켜 표현하였다. 본 작품연구 <표 4>에서는 용감해 보이는 장군의 머리와 수탉의 몸통 대신 가냘픈 여성의 얼굴에 표범의 몸을 연결시켜 동물과 인간이 결합된 부조화성을 표현하였다. 또한 작은 폐품조각을 이용하여 배경을 만들었는데, 본 작품에서는 폐품조각의 배경을 돌 탑 위에 쌓인 뼈다귀 모양으로 변형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다.

### (2) 제작방법

① 스틱 파운데이션을 이용하여 피부 톤을 밝고 깨끗하게 표현한 후 푸른색 계열의 라이닝 컬러를 이용하여 얼굴 윤곽 부분에 그라데이션 처리를 해주어 얼굴의 음영을 강하게 표현한다.

② 아이홀 기법을 이용하여 여성적인 느낌을 표현하였다. 푸른색 계열의 새도우를 이용하여 눈꼬리를 가볍게 빼 날카로우면서도 세심한 느낌이 들도록 표현한다.

③ 푸른색 라이닝 컬러를 이용하여 그라데이션 처리를 한 부위에는 새도우와 블랙 라이닝 컬러를 이용하여 표범무늬를 표현하였다.

④ 립은 푸른색과 대비되는 붉은 색 계열의 립스틱을 이용하여 강한 포인트가 되도록 그려주어 관능적으로 표현하여 <그림 37>과 같이 메이크업을 완성한다.

⑤ 어도비 포토샵을 이용하여 일러스트에 어울리는 배경을 만들어준다.

⑥ 그로테스크의 부조화적인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팔과 다리를 붙여 넣어 <그림 38>과 같이 작품을 완성한다.

<표 4> 작품Ⅱ 디자인 일러스트

<p>아이디어 스케치</p>	
<p>주제</p>	<p>Kentauros</p>
<p>그로테스크 특성</p>	<p>부조화성(인간과 비인간의 결합-동물)</p>
<p>사용색상</p>	
<p>사용재료</p>	<p>아쿠아컬러, 라이닝컬러, 스틱파운데이션, 글리터</p>



<그림 37> 작품 II 「Kentauros」 메이크업



<그림 38> 작품 II 「Kentauros」

### 3) 작품 III - Reveal Inner Side

#### (1) 디자인 의도

작품 III “Reveal Inner Side”는 극단과 과장에 속하는 “Song for Irina”를 재 해석한 작품이다. 원작에서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듯 무표정한 여성의 얼굴에 죽어서 백골이 된 몸을 합쳐 현실과 비현실을 동시에 표현하였다. 본 작품연구 <표 5>에서는 와 같이 여성의 얼굴에 화사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느낌을 나타 내도록 핑크색 계열을 이용하여 반을 표현하는 동시에 나머지 반에는 해골의 모습을 그려 내면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또한 아름다운 여성의 신체 중간에 찢 어져 뼈와 속이 보이도록 표현을 하였다. “내면을 드러내다”라는 주제처럼, 인 간의 아름답고 화려한 겉모습 안에 숨겨진 어두운 내면을 작품으로 표현해보았 다.

#### (2) 제작방법

① 스틱 파운데이션을 이용하여 피부 톤을 밝고 깨끗하게 표현해준다. 두 가 지 색상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여성의 모습에는 살구 색을, 내면의 모습을 나타 내는 부분에는 하얀 색을 이용하여 표현한다.



② 해골이 그려진 부위에는 셰이드 크림 파운데이션을 이용하여 얼굴 윤곽부 분을 그라데이션 처리를 해주어 얼굴의 음영을 강하게 표현한다.

③ 살아있는 모습에는 생기가 돌아보이도록 핑크색 새도우와 치크, 립을 사 용하여 생동감 있는 모습을 표현해준다. 내면의 모습에는 블랙 색상의 라이닝 컬러와 새도우를 이용하여 눈과 코, 광대 밑 부분 폭 꺼진 부위를 어둡게 처리 해준 후, 입술의 뒷부분까지 치아를 그려 표현하여 <그림 39>와 같이 메이크 업을 완성한다.

④ 어도비 포토샵을 이용하여 일러스트에 어울리는 배경을 만들어준다.

⑤ 일러스트 작업이 들어간 몸통에 메이크업 작품을 연결하여 자연스럽게 만 들어준 후 <그림 40>과 같이 작품을 완성한다.

<표 5> 작품Ⅲ 디자인 일러스트

<p>아이디어 스케치</p>	
<p>주제</p>	<p>Reveal Inner Side</p>
<p>그로테스크 특성</p>	<p>극단과 과장(정상적인 것을 벗어나 극단되고 과장되게 표현/현실과 비현실의 의식적인 뒤얽힘)</p>
<p>사용 색상</p>	
<p>사용 재료</p>	<p>아쿠아켈러, 라이닝켈러, 스틱파운데이션, 글리터</p>



<그림 39> 작품 III 「Reveal Inner Side」 메이크업



<그림 40> 작품 III 「Reveal Inner Side」

## 4) 작품 IV - 악마의 웃음

### (1) 디자인 의도

작품 IV “악마의 웃음”은 웃음과 공포에 속하는 “The Throne of Lucifer”를 재해석한 작품이다. 원작에서는 반인반수의 루시퍼가 돌로 된 의자에 앉아있다. 괴물의 얼굴과 인간의 몸이 합쳐져 있으며 삼지창을 든 채 무서운 얼굴로 한 곳을 응시하고 있다. 본 작품연구 <표 6>에서는 루시퍼 대신 매혹적인 여성이 붉은 드레스를 입고 앉아있는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이 여성이 앉은 곳은 의자가 아닌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삼지창이 들려있는 원작과는 달리 이 여성의 손에는 금화가 들려져 있으며, 밑에 깔린 사람들은 살아생전 갖은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여 부귀영화를 누린 후 죽어 평생 고통 받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악마의 웃음”에서는 물질에 이끌려 사는 현대사회의 사람들을 풍자했다. 원색을 이용하여 기괴한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 (2) 제작방법

- ① 스틱 파운데이션을 이용하여 피부 톤을 창백하게 표현해준다. 웨이드 크림 파운데이션을 이용하여 얼굴 윤곽의 음영을 강하게 표현한다.
- ② 화려한 느낌이 강하게 들도록 붉은 색 계열의 섀도우와 라이닝 컬러를 이용하여 얼굴을 꽃처럼 화려하게 표현하였다.
- ③ 붉은 립을 이용하여 매혹적이며 유혹적인 여성의 느낌을 표현하여 <그림 41>과 같이 메이크업을 완성한다.
- ④ 어도비 포토샵을 이용하여 일러스트에 어울리는 배경을 만들어준다.
- ⑤ 메이크업 완성작을 불러온 후 얼굴부분을 연결한 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마무리하여 완성한다.
- ⑤ 메이크업 완성작을 불러온 후 얼굴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마무리하여 <그림 42>와 같이 작품을 완성한다.

<표 6> 작품Ⅳ 디자인 일러스트

<p>아이디어 스케치</p>	
<p>주제</p>	<p>악마의 웃음</p>
<p>그로테스크 특성</p>	<p>웃음과 공포(악마적 이미지)</p>
<p>사용색상</p>	
<p>사용재료</p>	<p>아쿠아켈러, 라이닝켈러, 스틱파운데이션, 글리터</p>



<그림 41> 작품 IV 「악마의 웃음」 메이크업



<그림 42> 작품 IV 「악마의 웃음」

## 5) 작품 V - 인형의 꿈

### (1) 디자인 의도

작품 VI “인형의 꿈”은 웃음과 공포에 속하는 “Orangutan the Messenger”를 재해석한 작품이다. 원작에서는 사람의 몸에 하고 오랑우탄의 얼굴이 합쳐져 있다. 한 손에 메시지가 적인 종이를 들고 서 있다. 무표정한 오랑우탄의 표정은 우스꽝스러운 느낌이 든다. 본 작품 연구 <표 7>에서는 오랑우탄 대신 인형을 소재로 하였다. 작품에서는 인간인지 인형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한 여성이 서 있다. 그 여성은 손에 아름다운 꽃이 있지만 울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아름다운 꽃과 어울리지 않는 눈물을 한 작품에 같이 표현을 해 보았다. 이 작품에서는 인형처럼 자의와 상관없이 수동적인 삶을 사는 현대인들을 표현해보았다.

### (2) 제작방법

① 스프리트 검을 이용하여 눈썹을 눌러준 후 스틱 파운데이션을 이용하여 피부 톤을 밝고 깨끗하게 표현해준다. 웨이드 크림 파운데이션을 이용하여 얼굴 윤곽의 음영을 강하게 표현한다.


② 그레이 계열의 새도우를 이용하여 아이 홀을 잡아준다. 블랙 아이라이너를 이용하여 눈 주위를 강하게 표현해 준 후, 눈 밑으로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불규칙한 선을 그어준다. 선 주변으로는 실버 글리터젤을 이용하여 정리한다. 눈썹은 젤 라이너를 이용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눈썹 위쪽으로 가늘고 구부러지게 그려준다.

③ 립에 라이닝 컬러를 이용하여 각지고 어둡게 표현을 해 준 후 남은 여분으로 볼 주위에 주근깨를 그려 <그림 43>과 같이 메이크업을 완성한다.

④ 어도비 포토샵을 이용하여 일러스트에 어울리는 배경을 만들어준다.

⑤ 메이크업 완성작을 불러온 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그림 44>와 같이 작품을 완성한다.

<표 7> 작품Ⅴ 디자인 일러스트

<p>아이디어 스케치</p>	
<p>주제</p>	<p>인형의 꿈</p>
<p>그로테스크 특성</p>	<p>웃음과 공포(비생물 또는 동물을 의인화)</p>
<p>사용색상</p>	
<p>사용재료</p>	<p>아쿠아켈러, 라이닝켈러, 스틱파운데이션, 글리터</p>



<그림 43> 작품 V 「인형의 꿈」 메이크업



<그림 44> 작품 V 「인형의 꿈」

## 4) 작품 VI - Puzzle

### (1) 디자인 의도

작품 VI “Puzzle”은 비정상성에 속하는 “Delphyne”를 재해석한 작품이다. 원작에서는 여성의 얼굴과 두 손이 분리되어 마치 하나의 장식품처럼 표현되고 있다. 긴 머리카락은 뱀처럼 구불거리며 휘날리고 있으며, 얼굴과 손에는 비늘같은 무늬가 그려져 있다. 본 작품연구 <표 8>에서는 여성의 얼굴과 손을 신체에서 분리하였다. 얼굴과 손은 마치 퍼즐조각을 이어붙인 것 같은 느낌이며 가장자리는 퍼즐이 맞춰지지 않은 채 훑날리고 있다. 맞춰진 퍼즐은 그동안 살아 온 과거이며, 맞춰지지 않은 퍼즐조각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를 표현하고 있다. 인간의 얼굴을 퍼즐조각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맞추어 나가듯 이어져 나가는 삶을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 (2) 제작방법

① 스틱 파운데이션을 이용하여 피부 톤을 밝고 깨끗하게 표현해준다. 아쿠아 컬러를 이용하기 위해 파운데이션 위에 파우더 처리를 꼼꼼히 해주어 유분을 잡아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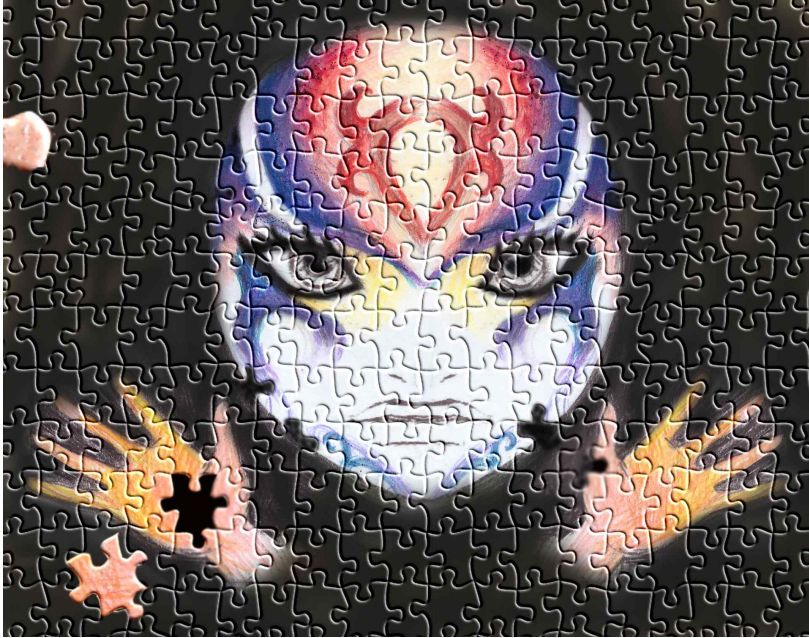

② 퍼플, 레드, 골드, 화이트 계열을 주 색상으로 사용한다. 마치 나무뿌리에서 뻗어져 나온 것 같은 곡선의 무늬를 화이트 펜슬을 이용하여 밑바탕을 그려준다. 그 위에 아쿠아 컬러와 새도우를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턱 라인까지 칠해주며 전체적으로 강한 느낌이 들도록 색을 여러 번 덧칠 해 진하게 표현한다.

③ 화이트 글리터와 스톤을 이용하여 <그림 45>와 같이 메이크업을 완성한다.

④ 어도비 포토샵을 이용하여 일러스트에 어울리는 배경을 만들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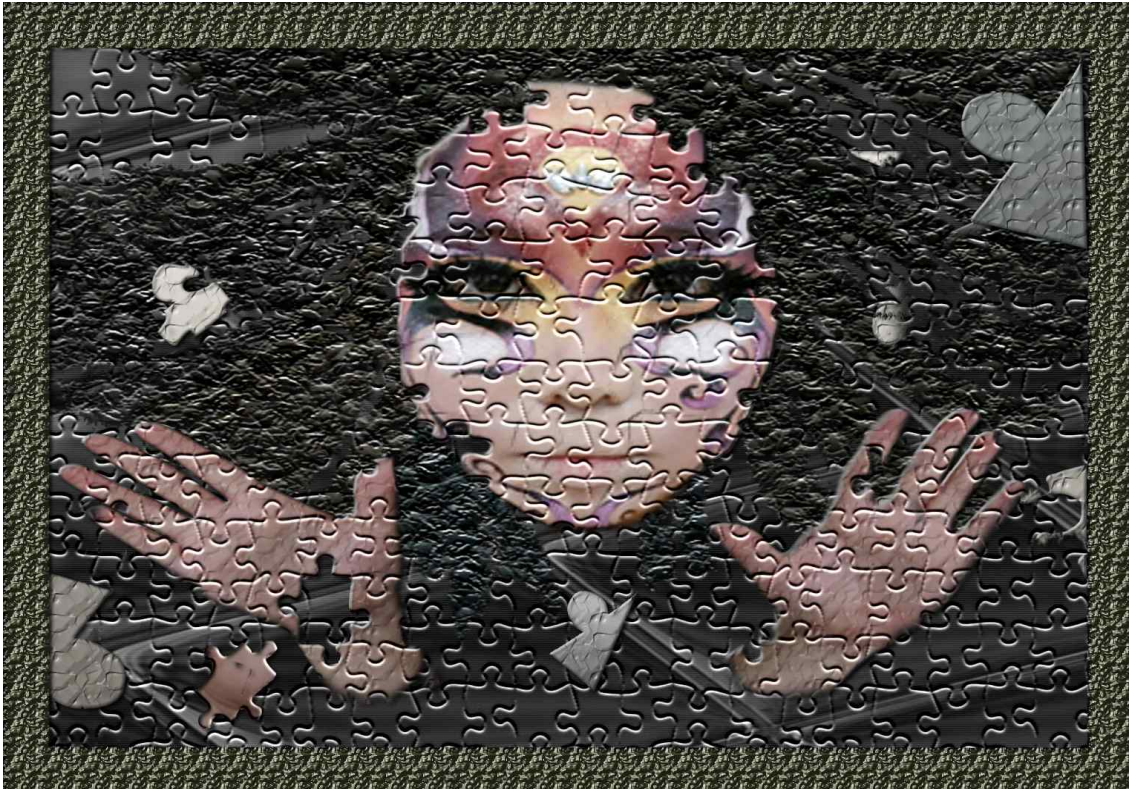
⑤ 메이크업 완성작과 양 손 이미지를 불러온 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그림 46>과 같이 작품을 완성한다.

<표 8> 작품Ⅶ 디자인 일러스트

<p>아이디어 스케치</p>	
<p>주제</p>	<p>Puzzle</p>
<p>그로테스크 특성</p>	<p>비정상성(신체를 왜곡하여 나타나는 비정상성)</p>
<p>사용색상</p>	
<p>사용재료</p>	<p>아쿠아컬러, 라이닝컬러, 스틱파운데이션, 글리터</p>



<그림 45> 작품Ⅶ 「Puzzle」 메이크업



<그림 46> 작품Ⅶ 「Puzzle」

## 4) 작품 VII - Poker Face

### (1) 디자인 의도

작품 VII Poker Face는 비정상성에 속하는 Crystal을 재해석 한 작품이다. 원작에서는 여성의 얼굴이 분리되어 작품 한 가운데에 그려져 있다. 이 여성의 얼굴 주변으로는 나뭇잎과 넝쿨과 같은 그로테스크한 장식들이 그려져 있으며, 마치 얼굴과 함께 하나의 장식품처럼 보이기도 한다. 본 작품연구 <표 9>에서는 여성의 머리를 분리하여 신체구조의 비정상성을 표현하고자 한다. 작품에서 나타난 여성은 메이크업으로 인하여 가면을 쓴 것처럼 얼굴이 이중으로 겹쳐있는 보인다. 메이크업 뒤로 보이는 얼굴 표정은 웃는 것인지 무표정인지 알 수 없어 보인다. 현대 사회의 인간관계는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본 작품에서는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식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이중성을 작품으로 표현해보았다.

### (2) 제작방법

① 먼저 밑바탕에 펜슬로 하트모양의 윤곽을 그려준다. 하트 안쪽에는 흰색 스틱 파운데이션을 이용하여 피부 톤을 밝고 깨끗하게 표현해준다. 바깥쪽은 베이지 색상의 스틱 파운데이션을 이용하게 깨끗하게 표현해준다.



② 흰색 파우더를 사용한다. 눈썹과 양쪽눈의 선은 라이닝 컬러를 이용하여 그려준다. 브라운 새도우를 사용하여 음영을 잡아준다.

③ 버건디 컬러의 립을 사용한다. 모양은 최대한 각이 지게 그려주며, 립 라이너 펜슬을 이용하여 선을 깨끗하게 그려 <그림 47>과 같이 메이크업을 완성한다.

④ 어도비 포토샵을 이용하여 일러스트에 어울리는 배경을 만들어준다.

⑤ 메이크업 이미지를 불러온 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그림 48>과 같이 작품을 완성한다.

<표 9> 작품Ⅶ 디자인 일러스트

<p>아이디어 스케치</p>	
<p>주제</p>	<p>Poker Face</p>
<p>그로테스크 특성</p>	<p>비정상성(신체를 왜곡하여 나타나는 비정상성)</p>
<p>사용색상</p>	
<p>사용재료</p>	<p>아쿠아켈러, 라이닝켈러, 스틱파운데이션, 글리터</p>



<그림 47> 작품Ⅶ 메이크업



<그림 48> 작품Ⅶ

## 8) 작품 VIII - Cogwheel



### (1) 디자인 의도

작품 VIII “Cogwheel”은 그로테스크 특성 중 비정상성에 해당되는 작품 “Adagio”를 재해석한 작품이다. 원작은 신체의 일부가 분리된 드로잉 작품이다. 작품에서는 노인의 얼굴과 등의 일부분이 분리되어 그려졌다. 얼굴 중간중간도 깨진 듯이 분리가 되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분리가 된 부분에는 어울리지 않는 꽃과 톱니바퀴 모양의 기계부품이 이질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본 작품연구 <표 10>에서는 톱니바퀴 모양의 기계부품에서 영감을 얻어 작품제작을 하였다. 톱니바퀴가 돌아가듯 항상 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현대인들의 삶을 톱니바퀴에 비유하여 쳃바퀴처럼 돌아가는 현대인들의 일상을 풍자하는 작품을 만들어보았다.

### (2) 제작방법

- ① 스틱 파운데이션을 이용하여 피부 톤을 깨끗하게 표현해준다.
- ② 블랙 아쿠아 컬러를 이용하여 얼굴 전체에 불규칙한 선을 그려준다.
- ③ 블랙 라이닝 컬러를 이용하여 립을 그려준다. 글리터를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빛이 나는 피부를 표현하여 <그림 49>와 같이 메이크업을 완성한다.
- ④ 어도비 포토샵을 이용하여 메이크업 위에 크고 작은 톱니바퀴를 깔아준다. 기계적인 느낌이 나도록 표현해주며 일러스트에 어울리는 배경을 만들어준다.
- ⑤ 메이크업 이미지를 불러온 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그림 50>과 같이 작품을 완성한다.

<표 10> 작품Ⅷ 디자인 일러스트

<p>아이디어 스케치</p>	
<p>주제</p>	<p>Cogwheel</p>
<p>그로테스크 특성</p>	<p>비정상성(신체를 왜곡하여 나타나는 비정상성)</p>
<p>사용색상</p>	
<p>사용재료</p>	<p>아쿠아켈러, 라이닝켈러, 스틱파운데이션</p>



<그림 49> 작품Ⅷ 「Cogwheel」 메이크업



<그림 50> 작품Ⅷ 「Cogwheel」

## IV. 결 론

변해가는 현대시대에서의 예술은 뚜렷한 구분 없이 유기적인 결합으로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토대로 크리스 쿡시의 작품을 재해석 한 후, 새로운 주제의 작품으로 디자인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작품을 제작하는데 있어 시각적 효과를 더하기 위해 어도비포토샵을 사용하여 완성도를 높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선행논문 및 단행본, 학술논문, 인터넷자료를 통해 이론적 고찰을 하였으며, 초현실주의 작가 크리스 쿡시의 작품 8점을 선택한 후 그로테스크의 현대적 정의를 시도한 필립툼슨이 분류한 특성 네 가지 ‘부조화성’, ‘왜곡과 과장’, ‘웃음과 공포’, ‘비정상성’으로 이미지를 나누어 분류 후 작품제작에 응용하였다.

작품 I ~ VIII에서는 공통적으로 어도비 포토샵을 이용한 디지털 페인팅 기법과 페인팅 기법을 활용하여 제작되었다.

작품 I의 “Loss of Identity”는 ‘부조화성’에 해당되는 작품으로 자아를 상실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작품 II의 “Kentauros”는 ‘부조화성’에 해당되는 작품으로 인간과 동물이 합쳐진 반인반수의 모습을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켄타우로스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표현하였다.

작품 III의 “Reveal Inner Side”는 ‘왜곡과 과장’에 해당되는 작품으로 인간의 아름다운 겉모습 안에 숨겨진 추악한 속마음을 표현하였다.

작품 IV의 “악마의 웃음”은 ‘웃음과 공포’에 해당되는 작품으로 물질만능주의 시대의 인간이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망과 탐욕을 위해 무엇이든 하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선택하였다.

작품 V의 “인형의 꿈”은 ‘웃음과 공포’에 해당되는 작품으로 인형인 무생물을 의인화하여 살아있는 것인지, 죽어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공포와,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듯 수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작품Ⅵ의 “Puzzle”는 ‘비정상성’에 해당되는 작품으로 인간의 얼굴을 퍼즐조각으로 분해하여 그동안 살아왔던 삶과 앞으로 다가 올 미래를 퍼즐조각으로 연결하여 연결된 고리를 하나하나 맞추어 나가듯 이어져 나가는 삶을 표현하였다.

작품Ⅶ의 “Poker Face”은 ‘비정상성’에 해당되는 작품으로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고 감춘 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작품Ⅷ의 “Cogwheel”은 ‘비정상성’에 해당되는 작품으로 쳃바퀴 돌아가듯 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현대인들의 무기력한 삶을 톱니바퀴에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작품제작을 통하여 그로테스크의 특성과 메이크업을 연결하여 표현하였으며, 메이크업으로는 표현이 불가능한 부분을 어도비 포토샵을 활용하여 작품을 완성시켰다. 현대사회에서 미술 및 비미술 분야에서 컴퓨터 그래픽의 활용도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크리스 쿡시의 원작 8작품을 재해석하여 작품제작을 연구하고 시도한 결과, 단순히 페인팅 기법만으로는 그로테스크함을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앞으로는 메이크업 분야에서도 컴퓨터 그래픽과 페인팅 기법을 접목하여 제작한 연구 작품이 더 많아져 창의적이면서도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단행본

- 김남희(2006). 『*BASE MAEK-UP*』, 서울: 도서출판 예림.
- 김영숙, 나영순, 노효경, 이종란, 이현주, 임미연(2006). 『*ART MAEK-UP*』, 서울: 도서출판 예림.
- 김홍희(1998). 『*페미니즘·비디오·미술*』, 서울: 도서출판 재원.
- 로버트 휴즈 저/ 박누리 역(2008). 『*DALI 명작 400선*』, 서울: 마로니에북스.
- 로제 마리 하젠, 라이너 하젠 저/ 김영선 역(2007). 『*피테르 브뤼헬*』, 서울: 마로니에북스.
- 마르셀 피케 저/ 김영선 역(2008). 『*르네 마그리트*』, 서울: 마로니에북스.
- 마테오 키니 저/ 윤옥영 역(2007). 『*클림트-세기말의 황금빛 관능*』, 서울: 마로니에북스.
- 박보영, 이수경, 이진용. 『*Make-up art*』, 서울: 청구문화사, 2002
- 볼프강 카이저 저/ 이지혜 역(2011), 『*미술과 문학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서울: 아모르문디.
- 움베르토 에코, 저/이현경 역(2006), 『*미의 역사*』, 파주: 열린책들, p. 133.
- 윌터 보싱 저/ 김병화 역(2007). 『*히에로니무스 보스*』, 서울: 마로니에북스.
- 윤난지 (2000), 『*현대미술의 풍경*』, 서울: 예경, p. 6.
- 윤민희 (2008), 『*새로운 조형예술의 이해*』, 서울: 예경, p. 35.
- 이은기, 김미정(2012). 『*서양미술사*』, 서울: 미진사.
- 이에인 잭잭 저/ 유영석 역(2008). 『*명화의 재발견*』, 서울: 미술문화.

- 이화순 외(2003), 「*The Art of Makeup*」, 서울: 형설출판사, p.8.
- 임두빈(2013). 「한 권으로 보는 서양미술사 101장면」, 서울: 미진사.
- 질 네레 저/ 정진아 역(2005). 「살바도르달리」, 서울: 마로니에북스.
- 천지연, 노선옥, 이귀영, 이영애, 김정희, 강명주, 김은주, 정철순, 홍수경  
(2009). 「*FACES in Make-up*」 서울: 청구문화사.
- 필립툼슨저/ 김영무 역(1986). 「그로테스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한명숙(1999). 「마귀아주예술」 서울: 청구문화사.

### 학회지 논문

- 김민정, 임지영(2012). 「현대 미술이 응용된 아트메이크업의 표현 특성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8(3). p.60.
- 김승현(2005). 「그로테스크 특성이 반영된 예술 분장의 연구」, *한국패션뷰티학회지* 3(2). p.40.
- 김호, 김재웅(2009). 「크리스 커닝햄의 작품에서 표현된 그로테스크 신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2). pp.175~176.
- 박은경(2003). 「패션에 표현된 그로테스크 이미지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1(10). pp.87~91.
- 박정원(2006). 「환타지 메이크업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적 특성」, *한복문화* 9(3). p.161.
- 엄경희, 최유미(2012). 「아티젠을 위한 홈 인테리어 텍스타일디자인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8(3). pp.311~312.
- 이선화(2011). 「메이크업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의 조형성」, *복식* 61(5). pp.36~43.
- 이영희(2010). 「그로테스크적으로 표현된 바디페인팅에 관한 연구」, *코리아뷰티디자인학회지* 6(3). pp.349~359.
- 장미숙 외 1명(2000). 「1990년대 후반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복식 26(3). p.439.

최정화, 유영선 (1998). 「현대 패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복식 40. pp.154 ~ 155

### 학위논문

강연경 (1999). 「보나벤투라의 야경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강현신 (2011). 「아트메이크업에 표현된 큐비즘 이미지」,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김부영 (2002). 「현대미술에 나타난 신체성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김승현 (2005). 「그로테스크 특성이 반영된 예술 분장의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부대학교 대학원.

김연아 (2012). 「라팔 올빈스키의 데페이즈망 기법을 활용한 아트메이크업 작품제작」,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김영숙 (2003). 「오브제를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의 표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김유경 (2002). 「무대의상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이미지 연구」,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김지혜 (2001). 「현대미술에 나타난 신체표현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김지은 (2007). 「앙리 마티스 작품을 응용한 일러스트레이션과 아트 메이크업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김한나 (2012). 「식물의 그로테스크 표현을 중심으로 한 장신구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맹월 (2011). 「레이스를 이용한 아트 메이크업의 조형성」, 석사학위논문,

- 건국대학교 대학원.
- 배기혜 (2009). 「사군자를 응용한 바디페인팅 작품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선영란 (2008), 「영국현대미술에서 나타나는 신체이미지의 특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9.
- 신용준 (2008). 「그로테스크 아트퍼니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윤성혜 (2007). 「그로테스크 표현을 통한 World of Warcraft와 리니지II의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
- 이규리 (2012). 「입체주의적 꼴라쥬 특성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연구: 파피에 콜레 기법」,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 이유나 (2011). 「시물라시옹 개념에 의한 바디아트의 시각적 이미지 표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정인 (2007). 「현대무용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적 성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이정후 (1988). 「포스트모더니즘에 나타난 불확정성」,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현주 (2003). 「피카소의 회화록. 이용한 바디아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 이현직 (2002). 「현대 아트메이크업의 회화적 경향과 기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 정웅 (2012). 「게임 컨셉 일러스트레이션에 표현된 그로테스크 이미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대학원.
- 조영아 (2013). 「현대미술에서 그로테스크 표현연구 도그마티즘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최미라 (2004).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추이미지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

- 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함순용 (2009). 「고야 판화연작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미학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홍근영 (2012). 「현대조각에서 신체를 통한 감정표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황혜진 (2013). 「현대패션에 나타난 카니발레스크 이미지와 의미해석」,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국외 문헌

### 단행본

Jon Beinart(2010), 「*Kris Kuksi: Division and Delusion*」, Brunswick North; Bein Art publishing by Jon BeinArt.

### 인터넷 자료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135&cid=373&categoryId=373/>  
(검색일자: 2014년 3월 2일) - 네이버 지식백과 마스크대사전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94739&cid=1388&categoryId=1388/](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94739&cid=1388&categoryId=1388)  
8 (검색일자: 2014년 3월 2일) - 네이버 지식백과 세계미술용어사전
- <http://www.emmahack.com.au/> (검색일자: 2014년 3월 4일) - emmahack개인 홈페이지
- [http://blog.naver.com/kor\\_kimpo?Redirect=Log&logNo=110115709027/](http://blog.naver.com/kor_kimpo?Redirect=Log&logNo=110115709027/) (검색일자: 2014년 3월 5일) - 네이버 개인 블로그
- <http://www.childrenspartiesnyc.com> (검색일자: 2014년 3월 5일) - 야후닷컴 검색
- <http://www.doopedia.co.kr/> (검색일자: 2014년 3월 5일, 4월 5일) - 두산백과

## 사전

<http://dic.daum.net/> (검색일자: 2014년 3월 5일) - 다음 한국어 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7696300/> (검색일자:2014년 3월 5일) -  
네이버 사전검색

<http://www.fissler.co.kr/> (검색일자: 2014년 3월 5일) - 휘슬러 홈페이지

<http://www.fotozup.com/> (검색일자: 2014년 3월 5일) - 야후닷컴 검색

<http://www.party-faces.com/history-of-facepainting.html/> (검색일자:2014년 3  
월 5일) - 개인 홈페이지

<http://www.pic2fly.com> (검색일자:2014년 3월 5일) - 야후닷컴 검색

<http://www.mathrubhumi.com> (검색일자:2014년 3월 5일) - 야후닷컴 검색

<http://http://blog.naver.com/dodo1750?Redirect=Log&logNo=40140020334> (검색  
일자: 2014년 3월 21일) - 네이버 개인 블로그

<http://blog.naver.com/hairpark2011?Redirect=Log&logNo=30143737231/> (검색일  
자: 2014년 3월 21일) - 네이버 개인 블로그

<http://cafe.naver.com/dodoacademycafe/1428> (검색일자: 2014년 3월 21일) -도  
도아카데미 네이버 카페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310260008875846](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310260008875846)  
(검색일자: 2014년 3월 21일) - 뉴시스 홈페이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5298&cid=1389&categoryId=138  
9](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5298&cid=1389&categoryId=1389) (검색일자:2014년 4월 3일) - 네이버 지식백과

<http://www.daljin.com/?BC=cv&DNO=3232&WS=33> (검색일자: 2014년 4월 5  
일) - 김달진 미술연구소

<http://www.joshualinergallery.com> (검색일자: 2014년 4월 5일) - 조슈아 라이  
너 갤러리(CA, The United States)

<http://kuksi.com/biography/> (검색일자: 2014년 4월 5일 ) - 크리스쿱시 홈페이  
지 갤러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75507&cid=40942&categoryId=33048/> (검색일자: 2014년 4월 5일) - 네이버 두산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9727&cid=272&categoryId=272/>  
(검색일자: 2014년 4월 5일) - 네이버 문학비평용어사전 발췌

<http://ambrosa.egloos.com/viewer/5562066/> (검색일자: 2014년 5월 3일) - 이글루스 검색

<http://hdnews.net/news/Kuksi082713/> (검색일자: 2014년 5월 3일)

-The Hays Daily News 기사 원문(KS, The United States)

<http://fantasticvisions.net/artists/kris-kuksi/> (검색일자: 2014년 5월 11일) - 야후닷컴 검색

# ABSTRACT

## Research on Grotesque Expression of Art Make-up by Applying Artworks of Kris Kuksi

LEE, Hyun Jin

Make-up and Special effect make-up Major

The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Design and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the modern time grotesque expressions are presented in most of the art works and it is being taken as one of the new art format nowadays. Authors deliver their messages to audience by expressing negative perspectives on society and inner side and irrationality of human symbolically through shocking factors in the work. In the modern grotesque by distorting and exaggerating body or things it emphasizes the reality by expressing imaginary world. As the expanded concept where it connects to the imaginary world and real problems it also describes area of psychoanalysi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look into the characteristics of grotesque presented in the artworks of Kris Kuksi, a surrealism artist representing visual arts, and to create art makeup works by categorizing his artworks

based on theory of Philip Thomson who tried to provide modern definition of grotesque. This research has its meaning in terms of assisting development of creative and various design such as improving systemic approaches to design process and ability and thinking and expanding of new art makeup design.

For the research method it has carried out theoretical consideration on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grotesque and art makeup based on previous researches and related references. This research has classified artworks of Kris Kuksi in accordance to the characteristics of grotesque defined by Philip Thomson and among them 8 artworks were selected to be recreated into art makeup works.

Here, it has classified artworks of Kris Kuksi into four characteristics of grotesque (inharmony, distortion and exaggeration, smile and fear, abnormality) and created into art makeup works. The digital painting and painting techniques are applied by using computer graphic when creating the works.

The “Loss of Identity” in artwork I applies to ‘incompatibility’ and represents modern people living in loss of their own identity.

In “Kentauros” of artwork II it applies to ‘incompatibility’ and represents imaginary monster Kentauros which is half man and half horse in Greek myth.

The “Reveal Inner Side” in artwork III applies to ‘distortion and exaggeration’ and represents double side of human being by describing horrible inner side and beautiful appearance outside at the same time.

The “Smile of devil” in artwork IV applies to “smile and devil” and this makes people to think money as the biggest value in life and connect

everything to the money. Also, it has lampoon mammonism that defies money as the god and the final purpose is always money.

The “dream of doll” in artwork V applies to ‘smile and fear.’ By turning puppet on the stage into an artwork this has lampooned modern people who cannot act on their will and living passive life operated by others.

The “Puzzle” in artwork VI applies to ‘abnormal’ and this represents past, current, and future life by connecting puzzles into one face.

In ‘Poker Face’ of artwork VII it applies to ‘abnormality’ of grotesque characteristics which represents dual image of human being facing with others while hiding one’s emotion.

The “Cogwheel” in artwork VIII applies to ‘abnormal’ and this compares routine life of modern people into cogwheel.

In this research, by using computer graphics in work creation, it has expressed and completed characteristics of grotesque by connecting it to the makeup.